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에 관한 연구

- 1998년 5월 反 화인폭동 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동남아시아지역전공

남 경 보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에 관한 연구

- 1998년 5월 反 화인폭동 사건을 중심으로

지도 류 석 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동남아지역전공

남 경 보

# 남경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년 7월 일

## 감사의 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류석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자들 곁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한없이 따뜻한 분이시지만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엄격한 스승이셨습니다. 학문에 임하는 자세와 과정, 결과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서 도움을 주셨고, 논문의 결과에 누구보다도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명림 선생님께서는 왕성한 학문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풍부한 학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지역학파’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학파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더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을 하는 자세와 열정을 가르쳐 주신 홍석준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족갈등의 문제를 권위자의 시각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늘 청년 같은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당시 아버지처럼 돌봐주셨던 양승운 선생님과, 세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문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던 박번순 선생님, 사고의 틀을 넓혀 주셨던 배공찬 선생님, 지역학과 발전에 밑바탕이 되어 주셨던 고상두 선생님, 동남아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도와주셨던 국립 Gadjah Mada 대학교의 김궁섭 선생님과 사모님, Suray, Gattup, 동보, 그리고 같이 고민했던 오이구 식구들과 지역학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막내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은 저에게 항상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모님같이 신경써주는 누나와 매형, 형과 형수, 그리고 너무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 조카 영석과 인영, 이제 곧 돌을 맞는 유찬이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차 례

표 차례 .....	iii
국문요약 .....	iv
<b>제 1장 서론</b> .....	1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 2절 연구방법과 분석 틀 .....	5
1. 연구범위와 방법 .....	5
2. 논문의 분석 틀 .....	7
<b>제 2장 기존연구 검토</b> .....	11
제 1절 多民族國家의 종족관계에 대한 논의 .....	11
1. 소수종족의 유형과 특징 .....	11
2. 소수종족의 대응방식 .....	14
제 2절 종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논의 .....	16
1. 종족정체성과 문화 .....	16
2. 원초주의와 상황주의 .....	16
제 3절 화인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8
<b>제 3장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형성</b> .....	22
제 1절 화인사회의 형성과정 .....	22
제 2절 화인의 분류와 인구 .....	28
1. 화인의 분류 .....	28
2. 화인 인구 .....	29

제 3절 화인의 문화적 특징 .....	30
1. 상관습(商慣習)의 일반적인 특징 .....	31
2. 화인들의 전통적 종교관 .....	36
3.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 .....	38
<b>제 4장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 원인 .....</b>	<b>40</b>
제 1절 경제적 격차 .....	40
1. 화인의 경제적 성장 배경 .....	41
2. 화인 자본의 성장 과정 .....	49
3.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당시의 화인의 경제적 지위 .....	52
제 2절 종교적 갈등 .....	55
1. 종교 갈등의 역사 .....	55
2. 종교 현황 및 전망 .....	57
<b>제 5장 화인문제의 분석 .....</b>	<b>60</b>
제 1절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의 양상 .....	60
1. 폭동의 발단과 전개 .....	61
2. 폭동의 파장과 문제제기 .....	65
제 2절 對 화인 정책의 변화 및 과제 .....	68
1. 對 화인 정책의 변화 .....	68
2. 對 화인 정책에 따른 화인의 행위 선택 .....	75
3. 對 화인 정책의 과제 .....	78
<b>제 6장 결론 .....</b>	<b>79</b>
<b>참고 문헌 .....</b>	<b>86</b>
<b>부록 .....</b>	<b>98</b>
<b>ABSTRACT .....</b>	<b>101</b>

## 표 차례

<표 3-1> 인도네시아 내 화인 인구 .....	30
<표 4-1> 부패한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통해 본 자본가 유형 .....	48
<표 4-2> 인도네시아 화인의 출신지별 장악 업종 .....	50
<표 4-3> 동남아 화인의 경제력 비교(민간 부기준) .....	52
<표 4-4> 동남아 화인의 GDP 비중 .....	53
<표 4-5> 250개 기업집단의 구조: 매출액 범위의 토착민과 비토착민 기업수 .....	54
<표 4-6> 인도네시아 의회민주주의 초기 의석수 .....	56
<표 4-7> 인도네시아 종교별 인구 분포 .....	58
<표 5-1> 1998년 5월 12일-17일 자카르타 주변지역의 인명피해 상황 .....	63
<표 5-2> 폭동 대상의 분류와 유형 .....	64

## 국 문 요 약

###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에 관한 연구

- 1998년 5월 反 화인폭동 사건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서,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의 근본적 원인 및 양상을 분석하고, 폭동 이후 정부의 對 화인 정책 변화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反 화인 폭동 연구는 기독교도인 화인과 무슬림인 토착민간의 종교적 갈등에만 주목한 측면이 많았고,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화인 유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을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화인의 경제적 성공으로 인한 토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측면까지도 고려하였으며, 反 화인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화인 유화정책이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고화 되는 과정과, 화인들이 對 화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를 이론적 틀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하지 모함마드 수하르또(Haji Mohammad Soeharto) 정권에서 對 화인억제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중국 문화의 표출이나 소개 등이 일체 금지되었고,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는 중국 이름을 인도네시아의 이름으로 개명까지 해야 했으며, 중국어 교육은 물론 중국어 신문발행이나 출판등이 모두 금지되는 등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속에서도 화인들은 가족중심의 유교문화와 신용을 토대로 한 화인 네트워크의 활용, 정치엘리트와 기업가 사이의 후견인-수혜자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 등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 화인에게 네트워크와 후견인-수혜자 관계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다. 나아가서는 화인기업의 핵심역량이 되고 분명한 경쟁우위가 되어 높은 성과를 낸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이용할 수 없는 배제된 계층에게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소수종족인 화인의 경제적 성장은 토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더불어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한편 20세기에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화인들의 기독교화 추세는 무슬림인 토착민들이 화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된 편견과 이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고, 이는 토착민과 화인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많다. 사회경제적 격차와 상호불신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토착민집단과 화인집단간의 균열에 종교적 갈등이 중첩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층=화인=기독교’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토착민사회는 이슬람근본주의적 호소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며 反 화인 정서에 쉽게 휩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의 6개 종교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종교공인정책은 화인들로 하여금 절충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전통적 종교관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화인들의 종교도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으로 변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反 화인 폭동 양상의 특징은 정치·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군중행동이 화인 테러로 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암암리에 이루어졌었다. 1998년 5월 反 화인폭동으로 화인자본의 대규모 해외유출을 경험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화인자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에, 화인들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중국 명절인 ‘춘절’의 공휴일 화, 신국적법 발효, 중국의 전통종교인 유교를 공식종교로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화인 유화정책들과 더불어 2004년 총선에선 정부수립 이후 제일 많은 70여 명의 화인 중앙·지방 의원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화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화정책과 화인의 정치참여 확대는 1998년 5월 反 화인폭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토착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反 화인 폭동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핵심되는 말 : 인도네시아, 화인, 종족 갈등, 종교 갈등, 폭동, 화인기업, 화인문화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강화가 21세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탈냉전으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범세계적 확산과 전지구화의 심화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 아세안+3(ASEAN+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sup>1)</sup> 등 지역주의의 강화는 블록간 경쟁과 갈등으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화의 추세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모든 민족국가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며, 자국 경제의 운명을 세계 자본주의의 지속과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위기위식이 팽배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종족간 경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전지구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sup>2)</sup>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전지구화로의 요구와 대응의 구도 속에서 민족국가 내부에선 종족정기, 종족성, 종족문화 등의 종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고도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서 각 민족국가는 타종족과 자종족을 구분하는 종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티벳과 위구르 신장자치구에서 끊임없는 종족분리운동이 일어나 중국의 대외정책에 무시못할

---

1) ASEAN+3 협력체제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동북아의 한·중·일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Anthony Giddens,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0), p.84.

변수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 같은 종교 전쟁의 양상에서 최근에는 티벳 종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처럼 더 이상 종족간 갈등이 기존의 언어나 종교의 차이로만 인식되기에는 반인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M. Wallerstein)은 냉전종식 후 국가에서는 국가라는 메커니즘이 가지는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다양한 인종, 종족, 종교, 언어집단들을 갖는 소수종족들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갈등의 원인이 과거 이념적이고 정치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의 상황은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환경이 원인이 된 종족간의 갈등이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큰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상은 현대사회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각 민족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전지구화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족간 경계를 공고하게 하는 종족정체화(ethnic identification)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전지구화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시대이며, 세계자본주의의 진전과 종족 정체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사회경제적 현상이 병존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종족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친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종족문제 연구는 무엇보다도 연구 분량 자체가 적은 것 이외에도 연구자의 시각이 동남아시아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종족관계와 관련하여 서구에서 개발된 종족관계 이론은 정치·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다수의 백인과 흑인간의 관계 또는 이민자와 난민과 같은 이질적인 이주집단의 현지사회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 내 소수종족인 화인이 다수의 토착민들보다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 내 종족 갈등은 그 종족의 특수성과 역사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내 화인과 토착민간의 종족갈등은 토착민의 경제적 불만과 화인의 정치적 불만이 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

3) Immanuel M. Wallerstein,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After Liberalism)』 (서울: 당대, 1996), pp.65-66.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인도네시아 소수종족에 불과한 화인들은 정치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화인 네트워크와 토착 정치엘리트와의 후원관계를 통해 국가의 주요한 경제부문을 장악하였다. 이에 여러 토착종족들은 화인을 식민주의 잔재세력, 경제적 착취자, 매판자본가로 규정하는 反 화인정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내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화인문제는 토착 종족들간의 통합을 이끄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을 사례로 한다. 일반적으로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와 ‘화인(華人, Ethnic Chinese)’의 의미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 ‘화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각종 방언을 포함한 중국어를 사용하며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를 지칭한다. 반면에 ‘화인’은 중국계이기는 하지만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현지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화교’는 중국 정부에 의해 관리·관할되고 있으나, ‘화인’은 거주국 정부 관리하에 있다.<sup>4)</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화교’가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부터 ‘화인’으로 지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화인’으로 총칭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수의 ‘화교’가 시민권을 이미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국적을 막론하고 중국인 후에 모두를 ‘중국인’으로 규정하여 정책상 차별을 가하였기 때문에 ‘화교’ 또는 ‘화인’의 용어 구분이 필요가 없다.<sup>5)</sup>

본 연구는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 및 갈등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폭동 이후 정부의 對 화인 정책 변화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화인들이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를 새로운 분석의 틀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종족 사회인 인도네시아가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결론에서 찾아본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은 언론매체에서 “인도네시아 종교 분쟁 가톨릭 청년 총살”, “인도네시아 사태-종교-인종갈등 새 불씨”<sup>6)</sup> 등의 표제로

4) 김화섭, 『동북아시아 중화경제권과 한국경제』 (서울: 산업연구원, 1997), p.13.

5) 신윤환, “인도네시아의 화교와 화교자본: 수하르토 집권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 2권 제 4호,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3), p.3.

보도되어 왔다. 비단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도네시아 反 화인 폭동 연구는 기독교도인 화인과 무슬림인 토착민간의 종교적 갈등에만 주목한 측면이 많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화인사에 주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화인 유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화인들이 정부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화인사회 특성으로서의 네트워크와 유교자본주의, 토착민 정치엘리트와 화인기업인간의 ‘후견인-수혜자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을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화인의 경제적 성공으로 인한 토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측면까지도 고려하였다. 본 논문은 1998년 5월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화인 유화정책이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고화 되는 과정과, 화인들이 對 화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를 이론적 틀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對 화인정책에 관한 연구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6년 12월에 ‘신 국적법’의 발효가 법과 제도상에서 對 화인 차별정책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되었으며, 압두라흐만 와히드 (Abdurrahman Wahid)<sup>7)</sup> 대통령 때부터 주장되어 왔던 유교의 공인종교화가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sup>8)</sup>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룬 것은 본 연구의 성과이다.<sup>9)</sup>

6) 본 논문 p.77의 각주 162) 참조.

7)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 대통령이다. 2001년 탄핵으로 인해 물러났다. 임기 기간은 1999년 10월 20일~2001년 7월 23일이다.

8) 인도네시아의 여섯 번째 대통령이다. 육군 대장으로 퇴역한 후, 2004년 7월 5일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9) 유교의 공인종교화가 와히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음은 신윤희의 “인도네시아의 화인: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배제 사이에서,” 박사명 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p.472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현 유도요노 정부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화인과 관련한 연구 분량 자체가 적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 제 2 절 연구방법과 분석 틀

### 1.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인도네시아로의 중국인 이민이 시작된 13세기 중엽 송대(宋代) 이전부터 현재까지이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이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토착민들의 대규모 反 화인 폭동사건이 있었던 1998년 5월 이후부터의 상황이다. 1998년 5월 폭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화인들의 종족 정체성이 정부의 동화정책으로 거의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토착민들이 화인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화인사에 주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1998년 5월 폭동 이전의 상황은 인도네시아 종족갈등의 축적과정이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배경으로서 언급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제 3장 화인사회의 형성에서 서술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문헌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통계자료와 함께 정부간행물과 신문잡지의 기사를 활용하였고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텍스트 검색을 주로 하였다. 통계자료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통계청 사이트나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주로 활용되었다.

또한, 현지어 학습과 병행하여 진행된 현지조사는 인도네시아 족자까르마(Yogyakarta)에 소재한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Universitas Gadjah Mada)를 중심으로 7개월간 수행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40%의 비율을 차지하는 자바족 이외에 약 300여 개의 소수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동아시아 내의 다민족국가이다. 그러므로 토착민의 反 화인 폭동을 비롯하여 종족집단간의 분쟁은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현지자료 접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명·인명의 철자 및 발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어와 원음을 따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민족’, ‘종족’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민족(nation)’은 생물학적, 지역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분류범주이며, ‘종족(ethnic group)’은 문화에 따른 집단 구분 범주이다. ‘민족’과 ‘종족’은 둘 다 문화를 그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실제 민족집단과 종족집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은 ‘종족 또는 종족집단’으로, ‘네이션(-스테이트) nation(-state)’는 ‘민족(-국가)’로 번역하는 것이 대세이다. 화인이 영어로 ‘에스닉 차이니즈(ethnic chinese)’임을 고려하여,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을 다루는 본 논문에서는 ‘네이션(-스테이트)’의 경우만 ‘민족(-국가)’로 보고, 그 이외에는 ‘종족’으로 통칭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논문의 분석 틀로서 알버트 허쉬만(Albert O. Hirschman)<sup>10)</sup>의 ‘이탈(exit)’, ‘항의(voice)’ 그리고 ‘충성(loyalty)’의 개념과 테드 로버트 거어(Ted Robert Gurr)<sup>11)</sup>의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과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가설을 세우는데 활용한다.

제 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첫째, 소수종족의 유형을 나누는 기존의 논의를 통해 화인의 특징을 규명하고, 소수종족이 다수종족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한 이론적 틀을 활용해 화인들의 대응방식을 분석한다. 둘째, 문화와 종족정체성과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원초주의(primordialism)와 상황주의(circumstantialism) 이론을 채택하여 화인-토착민간의 종족문제에 접근한다. 셋째, 정치적으로 배제된 화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화인 네트워크와 후견인-수혜자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화인과 토착민간의 경제적 격차를 벌려 놓아 두 종족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기재로 작용한다.

제 3장은 인도네시아 화인사회를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화인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섯 시기(미명기, 형성기, 성장기, 수난기, 성숙기)로 나누어 화인의 정착과정 및 지위의 변화 등을 개관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화인들을 분류하는 범주를 정하고, 인도네시아 내의 화인 인구를 살펴본다. 화인의 문화적 특징인 인척

---

10)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1)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을 중심으로 한 상관습(商慣習)과 전통적 종교관을 분석함으로써, 종족간 갈등 원인을 규명하는 제 4장의 논리 전개를 돕는다.

제 4장은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 원인을 화인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토착민의 상대적 박탈감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화인의 경제적 성장 배경, 화인 자본의 성장 과정 및 1998년 폭동 당시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다. 또한 기독교도인 화인과 무슬림인 토착민간의 종교적 갈등의 문제도 제시한다.

제 5장은 1998년 5월 대규모 反 화인 폭동사건을 중심으로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양상을 보여준다. 폭동의 발단과 전개과정 및 그 파장을 검토하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갖는 폭동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그리고 폭동 이후 정부의 對 화인 정책의 변화 및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 2. 논문의 분석 틀

### (1) 허쉬만의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sup>12)</sup>

집단폭력은 사회변동의 현장에서 방화, 강간, 약탈, 파괴, 혁명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어 왔으며 그 강도와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종족폭동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가해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집단행위를 통한 집단의지의 적극적 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족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단행동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쉬만의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과 이것들의 상호 작용원리는 기업, 조직, 국가 내부의 갈등상황 속에서 구성원이 선택하는 집단행동 체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첫 번째 개념인 ‘이탈’은 소비자가 회사 생산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회사 구성원들이 그 조직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서 총 소득액이 감소하게 되고,

12) Albert O. Hirschman, 앞의 책, pp.3-5, 79-80.

회사는 소비자와 구성원들의 이탈을 이끄는 원인을 바로 잡으려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항의’는 소비자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탈’ 해버리는 대신 불만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서 경영자가 다시 한 번 불만의 원인을 찾고 소비자와 구성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항의’는 직접적으로 경영자에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청원을 한다든지 강력한 경영 변화를 의도하여 더욱 높은 권력기관에 호소를 한다든지 또는 대중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동과 항의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실제 두 개념은 상황에 따라 혼합되기도 하며 두 개념의 공존에 ‘충성’이라는 개념이 끼어든다. ‘충성’의 개념은 ‘이탈’과 ‘항의’의 공존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충성’을 가진 사람은 ‘이탈’을 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다가 회사와의 의견 불일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탈’을 하겠다고 위협을 한다. 이러한 위협은 자신의 ‘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를 인도네시아 정부로, 회사의 구성원을 인도네시아 화인들로 가정하여, 反 화인 폭동 이후 對 화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화인들이 선택하는 행위를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의 이론적 틀로 설명한다. 한편, 反 화인 폭동 이후 화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인들이 ‘이탈’을 하고, 어떤 이들이 ‘항의’를 선택하고, 또 어떤 이들이 ‘충성’을 했는지 하는 문제의 분석이 필요하다. 화인 유화 정책의 배경이 ‘부유한 화인’의 해외로의 ‘이탈’을 막는데 있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화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탈’, ‘항의’, ‘충성’을 선택할 수 있는 처지도 다르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한다.

## (2) 거어의 상대적 박탈이론

본 연구는 1998년 5월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주목하며, 反 화인 폭동의 근본적 원인을 토착민들이 화인에 대해 갖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왜 하필 1998년 5월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이러한 폭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어는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폭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행위자의 가치기대(value expectation)와 가치능력(value capabilities) 사이의 인지된 괴리(perceived discrepancy)”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가치기대’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몫)라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치능력’은 “자신들이 실제로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당연히 획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획득할 수 없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며, 이것이 집합적 폭력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집합체의 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서 폭력의 잠재력이 결정된다고 거어는 주장한다.<sup>13)</sup>

한편 거어는 상대적 박탈감 자체가 정태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가치기대’와 ‘가치능력’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즉 상대적 박탈은 체감적 박탈(decremental deprivation), 열망적 박탈(aspirational deprivation), 점진적 박탈(progressive deprivation)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체감적 박탈은 집단내의 ‘가치기대’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가치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지할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 때 가졌던 것을 잃는 데 대한 분노를 느낀다.

둘째로 열망적 박탈은 ‘가치기대’, 즉 대중의 열망수준은 증가하는데 ‘가치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셋째로 점진적 박탈은 상당한 기간의 진보, 즉 사회경제적 발전 뒤의 급격한 후퇴가 일어날 때 발생되며, 사람들은 기대와 능력간의 격차를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여기에서 집합행동으로 이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치기대’와 ‘가치능력’간의 거리로 개념화되고 있는 만큼, 거어는 상대적 박탈감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인으

---

13) Ted Robert Gurr, 앞의 책, p.24.

로 기대를 상승시키는 요인과 ‘가치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치기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기대상승을 정당화해 주는 신념의 확산, 지위 상승으로 인한 가치증대의 효과, 그리고 각종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등을 들고 있다.<sup>14)</sup> 한편 거어에 의하면 ‘가치능력’은 사회의 축적된 가치의 양이 변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비례하고, 다른 집단이 그 가치에 대해 얼마나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느냐에 반비례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치능력’은 과거의 가치상실 경험과 반비례하고, 가치기회의 개방 정도에 비례한다고 하였다.<sup>15)</sup> 거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박탈가치들을 신체적 안녕을 보장하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s)와 자아실현의 가치를 포함하는 복지가치(welfare values), 참여의 가치를 포함하는 권력가치(power values),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포함하는 대인적 가치(interpersonal values) 등으로 나누고 있다. 사실상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정치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여러 차원의 가치충족을 추구하고 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충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다양한 종류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수준에서도 지배집단과의 비교에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인종, 종족, 연령, 성, 종교, 지역 등 다양한 종류의 소수집단들이 집합행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거어는 주장한다.

反 화인 폭동 직전에 인도네시아는 정치·경제적 격변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봉착하면서 화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토착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反 화인 폭동이 토착민의 ‘가치기대’와 ‘가치능력’ 사이의 인지된 괴리에서 발생하였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을 화인들이 강탈하였다며 폭동을 통해 反 화인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4) Ted Robert Gurr, 앞의 책, pp.92-93.

15) Ted Robert Gurr, 위의 책, pp.123-125.

## 제 2 장 기존연구 검토

### 제 1 절 多民族國家의 종족관계에 대한 논의

#### 1. 소수종족의 유형과 특징

다민족국가에서 종족간의 관계는 “다수종족과 소수종족과의 관계”와 “소수종족들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과의 갈등은 “다수종족과 소수종족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 다양한 종족들이 포함된 다민족국가에서 소수종족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일반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염두에 두고 토마스 헤베러(Thomas Heberer)<sup>16)</sup>는 다섯 가지 사항을 소수종족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준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소수종족들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일반화로 설명되어질 수 없음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소수종족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해 나가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 (1) 토착과 이민

많은 경우 소수종족의 문제는 현재 다수종족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에 의한 여타종족의 정복이나 식민주의적 팽창의 결과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서 다른 사회단위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의하여 생겨났다. 소수종족집단이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 정착해 온 집단인 경우와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경우는 각각 타집단, 특히 다수집단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종족문제는 중국인의 대규모 인구 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화인의 이민은 다수를 차지하는 토착민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며, 중국인들의 자발적 이민 의지보다는 식민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화인

---

16) Thomas Heberer,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utonomy of Assimilation?* (London: M. E. Sharpe, Inc., 1989), pp.7-8.

들은 인도네시아 소수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정부에 의해 토착민 노동자의 관리 및 세금을 수취하는 역할을 1945년 독립 때까지 대행하며 독특한 법적·경제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서양인들과 차별을 받지만 다수인 토착민보다는 상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토착민들은 이민자의 경제적 통제를 받게 되면서 反 화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 (2) 언어와 종교

소수종족은 다수종족과 문화적 특징을 달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언어와 종교의 차이가 중요하다.<sup>17)</sup> 그러나 언어와 종교를 달리하는 것이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흑인과 중국의 회족(回族)은 중심종족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소수종족으로 분류되고 중국의 광둥인은 자신들만의 광둥어를 쓰면서도 한족(漢族)으로 취급된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를 다수종족과 달리하면 대체로 소수종족으로 분류되지만 어느 경우는 종교적 차이가 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sup>18)</sup>

인도네시아에서는 와히드 정부 이전까지 공·사립 학교의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 출판물 제작 및 수입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화인이 토착민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 대다수가 무슬림인 토착민들과 달리 상당수의 화인들이 기독교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화인들의 기독교 수용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화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 증가율이 평균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는 센서스 결과를 보더라도 기독교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19)</sup> 두 종족간의 폭동 역시 교회와 이슬람사원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인=기독교’라는 등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차이는 화인을 소수종족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17) 이원삼, “아랍 소수민족 종파분포도,”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17권, 한국중동학회, 1996, pp.7-9.

18) 최협·이광규, 『다민족국가의 민족문제와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p.23-24.

19) 신윤환,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종교: 적응과 변용,” 김영수 편 『동남아의 종교와 사회』 (서울: 오름, 2001), pp.227-228.

### (3) 지역적 분포

소수종족은 고유의 지리적 영역을 확보하면서 살기도 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 살기도 한다. 또 다른 소수종족은 주로 국경지대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어떤 소수종족은 다수종족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사는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다수종족인 토착민이 주로 거주하는 자바(Jawa), 수마트라(Sumatra) 등지에 모여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차이나 타운이 건설되어 있다.<sup>20)</sup> 특히, 수마트라의 메단(Medan)시는 150만 명의 인구 중 30%가 화인이다. 대도시에서 상업, 무역업, 금융업에 종사하며 토착민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화인들이 주로 反 화인 폭동의 표적이 된다.<sup>21)</sup>

### (4)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소수종족들은 한 국가 내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어느 특정 소수종족집단이 그 숫자에 있어서도 무시 못할 만큼 많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의 정도가 다수집단의 그것을 따라가거나 능가한다면 그러한 집단은 그 반대의 경우인 집단에 비하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인도네시아 화인은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지만, 토착 정치엘리트와의 후원관계와 화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73%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화인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 또한 이렇게 경제적 발전 정도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 (5) 정치적 권력

소수종족이라 함은 우선 수적으로 열세인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주로 쓰이기는 하지만 집단의 크기가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 남아 연방의 백인집단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소수종족으로 불려지

---

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안콘가(街)’가 대표적이다.

21) 박정동, “뿌리깊은 화교 배척의식...관계 개선中,” 인천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검색일: 2009년 3월 14일) <http://www.uics.or.kr/bbs/zboard.php?id=story&page>.

2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9, 1998.

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국에서는 소수 종족은 곧 ‘지배적’이지 못한 집단을 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수종족과 다수종족의 구분에 있어서 정치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3)</sup>

1965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sup>24)</sup> 정권에 대한 쿠데타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로써 對 화인억제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화인의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화인의 경우는 다수 종족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으나 정치적 지배력은 갖지 못한다.

## 2. 소수종족의 대응방식

다종족사회에서 소수종족은 자신의 종속적 지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어떤 종족은 주어진 종속적 지위를 감수하고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지만, 다른 종족은 다수종족에 저항하며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기도 한다. 루이스 워스(Louis Wirth)<sup>25)</sup>는 소수종족의 대응방식을 4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다원주의적 소수집단’인데, 이 집단성원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과 양식을 지키면서 주류사회의 주요 정치적·경제적 제도에 참여한다. 다인종·다종족사회에 자발적 이민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대응방식을 취하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인들이 바로 이 집단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둘째는 ‘동화주의적 소수집단’인데, 이 집단성원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기보다는 주류사회에 동화되고 통합되려 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해 와 이제는 정착한 유럽계 미국인들이 바로 이러한 집단에 해당한다.

23) Deirdre Meintel, “소수집단이란 무엇인가?” 『The UNESCO COURIER: 세계로 열린 창』 (서울: 창, 1993), pp.12-14.

24) 인도네시아 두 번째 대통령이다. 임기 기간은 1967년 3월 12일~1998년 5월 21일이다. 350억 달러에 달하는 부정 축재 문제로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20세기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꼽기도 했다.

25) Louis Wirth,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In Linton, Ralph(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5), pp.347-372.

셋째는 ‘분리주의적 소수집단’인데, 이 집단성원은 동화나 문화적 자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주류 사회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추구한다. 캐나다의 퀘벡주에 거주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바로 이러한 집단으로서 이들은 프랑스 문화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퀘벡주에서 자신들의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쟁취한 동티모르도 바로 분리주의 전략을 택한 경우이다.

넷째는 ‘호전적 소수집단’인데, 이 집단성원은 분리주의적 소수집단처럼 주류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집단을 지배하여 자신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인데, 이들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토착종족인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지배집단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수종족의 대응방식은 다종족사회에 있어서의 종족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중 오직 한 이론만이 종족간 관계를 바르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갈등의 양상은 언제나 상호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병존하여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7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어 교육과 중국 명절인 춘절을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가 허용되지 않았다.<sup>26)</sup> 그래서 화인들은 인도네시아의 교육 및 정치제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동화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주요 연구들이 예측했던 것만큼 빠르게 화인들은 이슬람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sup>27)</sup> 정부는 2005년부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로서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종교에 유교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의 화인들에게 아직도 중국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화인들은 다원주의적이고 동화주의적인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

26)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교 유희정책,”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2007년 5월 14일자 (검색일: 2009. 4. 5) <http://korea.kr/newsWeb/index.jsp>.

27) L. Suryadinata,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1(1), Summer-Fall 1987, p.137.

## 제 2 절 종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논의

### 1. 종족정체성과 문화

‘종족정체성’이란 용어는 사회과학 내에서 논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종족정체성과 종족성에 대해 말하려면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족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sup>28)</sup> 문화는 물질적으로 드러난 습관과 관습 체계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획득물”,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들”이다.<sup>29)</sup>

문화란 자연에 대한 전유와 변형의 역사 과정에서 진화하면서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고, 사회에 의해 조직화되는 관습, 사회질서 그리고 생활양식의 총체와 실재인 언어, 전통, 민속, 심리적 취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가치 체계이며, 이를 통해 성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동시에 타인과 자신들을 구별한다. 그리하여 개인은 해당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이는 왜 문화와 종족성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왜 문화에 대한 공격이 종족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되는가를 설명해 준다.<sup>30)</sup>

### 2. 원초주의와 상황주의

원초주의적 접근에서는 종족성 그 자체를 독특한 힘과 결정력을 지닌 환원할 수 없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한다.<sup>31)</sup> 이는 종족간의 경계를

---

28) L. Romanucci-Ross and G. DeVos (Eds.), *Ethnic identity: Creation, conflict, and accommodation* (California: AltaMira Press, 1995), p.349.

29) James G. Kellas,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Hampshire: Macmillan, 1991), pp.66-67.

30) Thomas Heberer, “Ethnic Revival, Ethnic Identity and Ethn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in China,” 『비교문화연구』 제 3호, (서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7), pp.131-133.

나눔에 있어서 종족성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강조하여 어떤 체질적이고 생리적인 차이를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상황주의적 입장은 종족성을 어떤 종족의 행위와 그 종족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종족성이라는 명제를 종속 변수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종족문제라는 것이 그 종족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종족을 둘러싸는 환경과 종족의 행위가 반응하여 사회, 경제, 정치적인 구조 내에서 새로운 갈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sup>32)</sup>

한편 양접근 방법의 한계를 살펴보면, 전자의 원초주의적 접근은 종족고유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종족성이라는 문제가 변화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요소를 정적인 고립된 실체로 파악하게 되어 문화의 구성적·과정적 측면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면 상황주의적 입장은 종족고유의 특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갈등의 형성을 중시함으로써 종족문제를 사회·경제적 문제로 환원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종족간의 갈등이라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두 가지의 관점 중에서 보다 적절하고 설명력이 높은 관점은 있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인들이 토착민에 비해 물질주의 경향이 강해 기독교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 혈연(血緣)·지연(地緣)·업연(業緣)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중국계 문화 성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두 종족간의 원초적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식민지시대 이후 고착화된 두 종족간의 경제적 불평등이기에 상황주의적 입장에서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31) Clifford Geertz,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1998), p.304.

32) ‘원초주의’와 ‘상황주의’의 논의에 대해서는 Milton J. Esman, *Ethnic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10-11. 홍석준,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 정체성의 문화적의미,” 『지역연구』 제 2권 4호,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3), pp.103-104.를 참조.

### 제 3 절 화인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차별 정책에도 불구하고 화인이 현지 토착민보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주된 논의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화인이 토착민보다 빨리 돈을 사용하고 상술에 익숙하였음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조기 시작 모델(Early Start Model)’<sup>33)</sup>과, 식민시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보는 ‘매관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sup>34)</sup>의 주장이 있다. 그리고 토지소유, 정부, 군대로부터 제외된 화인들이 상업의 기회를 통하여 성공하려는 선택 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sup>35)</sup>과, 신용과 관계(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의 특수한 자본주의 체제에 주목하는 ‘네트워크 자본주의(Network Capitalism)’<sup>36)</sup>에 입각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인들이 토착 정치엘리트와의 ‘후견인-수혜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sup>37)</sup>를 통해 성공하였다는 설명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의 논의 중 ‘매관자본주의’에 관한 논의는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의 감정적 갈등 관계가 형성된 기원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경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착취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적은 수의 관리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동인도회사는 시장독점을 통한 식민지 경영

---

33) Maurice Freedman, “The Handling of Money: A Note on the Background to the Economic Sophistication of Overseas Chinese,” in M. Freedman(ed.), *The Study of Chinese Socie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p.93-139.

34) J. A. C. Mackie, “Changing economic roles and ethnic identities of Southeast Asian Chinese: A comparison of Indonesia and Thailand,” in Cushman and Wang(ed.), *Changing Ethnic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88), pp.217-260.

35) J. A. C. Mackie, 위의 책, pp.217-260. Mackie는 ‘Marginal Trading Minority’ 라고 지칭한다.

36) Gary Hamilton, *Business Net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1991), p.6.

37) Andrew MacIntyre, *Business and Government in Industrializing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113-142.

에 화인들의 유용함을 곧 발견하고 그들에게 징세도급의 권리를 주었다. 징세도급제는 국가에 고정된 액수를 미리 지급하고 획득한 특정의 서비스를 행하거나 이윤추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 정의되는데, 동인도회사 하에서 그 징세영역이 훨씬 광범해졌을 뿐만 아니라, 징세대상도 화인과 외국인을 넘어 토착민 전체로 확대되었다.<sup>38)</sup> 동인도회사는 화인들에게 단순히 무역 관세 징수에 한하지 않고 인두세, 도로통과세, 도살세, 시장세, 아편판매 등 광범한 일상적, 경제적 활동에서 농민을 수탈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동인도회사의 재정을 충당해주는 동시에 네덜란드 관리들과 화인 징세도급인에게 축재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징세도급제 하에서 징세원 역할을 한 화인들의 수는 10% 정도에 불과했으나, 이 제도가 제공해 준 농촌 토착사회에 대한 접근은 다른 화인들로 하여금 경제적 중간인으로서 상품 유통과정을 장악하게 해 주었으며, 화인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농촌 지역에서 서구 상품을 판매하였고, 각종 농산물에 대한 입도선매와 같은 착취적 계약행위를 자행했다. 물론 희생자들은 토착 농민들이었으며, 화인과 토착민간의 감정적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화인의 경제적 성공 원인을 위에서 설명한 ‘매관자본주의’의 주장 외에 ‘네트워크 자본주의’, ‘유교자본주의’, 토착정치엘리트와의 ‘후견인-수혜자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화인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네트워크 자본주의’는 연결망에 의존하는 중국인들의 경제활동의 특성에서 비롯된 특수한 자본주의 체제를 말한다. 이것은 화인들의 경제적 성공을 내부적 속성에서 찾아 이를 문화적 접근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제도화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 화인 사회 내에서 강조하는 것으로는 ‘신용’과 ‘관계’로 이를 통한 수평적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화인 공동체 내의 결속과 유대관계는 화인들의 이주와 상업활동에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중국인들은 동족(同族), 동

38) Anthony Reid, “The Origins of Revenue Farming in Southeast Asia.” John Butcher and Howard Dick. eds. *The Rise and Fall of Revenue Farming: Business Elites and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in Southeast Asia* (New York: St. Martin’s, 1993), p.69.

향(同鄉)인의 연줄에 의존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공통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살았고 또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차이나 타운(China Town)이 형성되었다. 동족, 동향인에 의지하기 위하여 서로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하여 동족, 동향, 동업 등 삼각관계가 중요해졌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화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화인의 비공식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는 ‘유교자본주의’<sup>39)</sup>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 ‘유교자본주의’라는 개념은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개신교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실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은 서구에서 개신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역사적 과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서구에서는 중세 봉건적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중세 가산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류석춘은 기업과 민간의 조직방식을 논하면서, 유교 조직에서 혈연·지연·학연이라는 연결망은 유교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 예로 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 전통사회의 이념인 유교는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이념이며, 가족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된다. 따라서 가족의 일원을 사업에 끌어들이는 일은 비밀비재하며, 사업의 확장에 따라 친인척과 형제자매의 기용으로 세를 다각화해 나간다. 또한 혈연·지연·학연이라는 유교적 연고집단은 개인들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sup>40)</sup>

한편 토착 정치엘리트와의 ‘후견인-수혜자 관계’의 구축은 화인들이 대기업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선 사림(Salim) 그룹, 밥 하산(Bob Hasan) 그룹 등의 화인기업이 수하르또 정권과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오

39) 류석춘, “동양,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 봄호, (서울: 사회과학원, 1998), p.128.

40) 류석춘,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부문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 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제 10권 2호, (서울: 자유기업원, 2002), p.91.

랫동안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화인기업가들은 토착 정치 엘리트로부터 경제 활동의 안전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고 정부용자 등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41)</sup> 반면에 정부는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화인들로부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본가 혹은 기업주와 정치 엘리트 사이의 친화적 결합력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기업주 개인의 사적 연결망에 의존적이며, 따라서 기업 구조와 전략까지도 ‘후견인-수혜자 관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 기존의 화인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는 논의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중국 당나라 이후 지속적인 해외 무역의 발달과 상업의 성장은 화인들이 일찍 상업에 적응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조기 시작 모델’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또한 수하르토 정권의 화인억제정책으로 정치적 활동의 제약이 받게 된 화인은 어떠한 상업의 기회를 통해서라도 삶의 기반을 빠른 시간 내에 형성했어야 했다는 논의도 설득력을 지닌다.

---

41) Andrew MacIntyre, *Business and Government in Industrializing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113-142.

## 제 3 장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형성

### 제 1 절 화인사회의 형성과정

인도네시아의 화인에 대한 역사는 화인의 존재 자체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정되었기 때문에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식민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의 화인에 대한 기록은 중국 사서(史書), 관료, 승려들에 의한 산발적인 기록뿐이고 식민통치 이후에는 유럽 중심적인 서술방식으로 인해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에는 화인연구가 사실상 금지되고 남아있는 기록들은 체제유지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화인연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화인자체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재하는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략적으로나마 중국에서 이주해 온 시기별로 화인의 역사와 특성을 정리하면, 인도네시아 화인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미명기(未明期: 1619년 이전), 형성기(1619-1799년), 성장기(1800-1929년), 수난기(1930-1965년), 성숙기(1966-1998년)가 그것이다.<sup>42)</sup>

이 가운데에 인도네시아 토착민들 사이에 反 화인 감정이 움트는 시기는 화인의 성장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화인들은 중간상인, 소·도매상인, 농작물 유통업자 등의 경제 중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 정부를 위해 토착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고 일부를 수취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면서 토착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sup>43)</sup>

---

42) 신윤환, “인도네시아의 화인: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배제 사이에서,” 박사명 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p.427.

43) 임영호, “기업문화와 상관습: 인도네시아 화인의 상관습,” 『국제지역정보』 제 7권 4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3), p.77.

(1) 미명기(未明期)

식민통치 시대 이전 동남아의 역사는 중국 사료들이 가장 많이 전해주고 있음에도, 정사(正史)에 담긴 동남아에 관련된 기술은 내용이 빈약하고, 극소수에 여행기나 보고서들은 전 시기에 걸쳐 있지 않아 연속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불만족스럽다. 동남아를 왕래하거나 그곳에 체류, 정착하고 있던 중국인들이나 그 집단에 대한 기술은 희소하여 이 시기를 미명기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식민통치 이전 동남아의 화인사회가 중국 정부의 관심이나 보호 밖에서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화인들의 적응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 이는 이후 서구 식민정부나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 중국 정부와 민족주의자들이 보였던 동남아로 이주한 중국인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와 큰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식민지 이전 동남아에 이주했던 중국인들은 토착사회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토착사회에 동화되어 갔다. 이 시기에 토착사회와 화인들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화인들의 종교적 태도로서, 당시 대다수 화인들은 이슬람교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이처럼 당시 화인들이 자바의 종교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동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지역의 전통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화인들과 그들의 교역 활동을 환영하였다.<sup>44)</sup> 더욱이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국제무역이나 환금작물 재배 등 토착사회의 고유한 경제영역 외부에 제한되어 있어 토착민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았다.<sup>45)</sup>

(2) 형성기: 초기 화인사회의 형성

네덜란드 식민통치의 첫 번째 시기는 네덜란드인들이 자카르타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한 1619년부터 동인도회사가 파산한 1799년까지 180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다스린 것은 네덜란드동인도회사였다. 물론

---

44) 임영호, 앞의 책, p.76.

45) 신윤환, 앞의 책, p.428.

동인도회사는 이름만 회사였지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권, 사법권, 군사력을 두루 갖춘 ‘국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국가의 권력과 지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주인 네덜란드의 왕실과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배당해 주어야 했고, 이는 훗날 성립될 인도네시아 국가가 이른바 ‘약탈국가’의 성격을 띠게 하는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경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착취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향신료 재배지와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 향료에 대한 배타적 통제,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영토 지배 등, 독점과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시장외적 힘을 동원하게 하였다. 초기의 동인도회사 총독들은 가능한 한 많은 화인들을 유치하여 설탕과 후추 등 환금작물 생산과 구매에 종사케 하고, 이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여 동인도회사의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하였다. 이후 동인도회사는 화인들에게 독점권인 정세도급의 권리를 주어 광범한 일상적, 경제적 활동에서 토착 농민들을 수탈하도록 허용했다.

동인도회사의 식민통치는 화인의 지위를 국제무역상과 도매업자로부터 국내유통업자와 소매업자로 바꾸어 놓았고, 과거 토착엘리트에 제한되어 있던 이들의 접촉 범위도 농민으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화인이 네덜란드 관료들의 대변인으로 여겨짐에 따라 세금수탈이나 소금전매, 아편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sup>47)</sup> 그 결과 화인들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토착민 피지배층, 유럽인 무역상과 토착민 소비자 및 생산자를 연결하는 중간인으로서 식민지 경제의 불가결의 존재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동인도회사가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180년 동안 인도네시아 화인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고착화되어 서구 식민주의자들이나 토착농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집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46) Benedict Anderson, “Old State, New Society: Indonesia’s New Order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Studies*, 42(3), 1983, pp.477-496.

47) Stuart William. Grief, *Indonesian of Chinese Origin* (New York: PWPA. 1988), p.3.

### (3) 성장기: 화인경제의 성장

동인도회사가 파산한 1799년부터 대공황이 세계경제를 강타한 1929년까지 130년의 기간은 중국인들의 인도네시아 이주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화인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부문에 깊숙이 침투하여 뿌리를 내렸으며, 양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하여 네덜란드인들이 물러간 후 계층구조의 상층부에 자리잡게 되는 기초와 자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일시기에 일부 화인들은 네덜란드 식민 정부 및 식민주의자들과 ‘후견인-수혜자 관계’의 성격을 띤 협조관계를 확립하여 토착민들을 수탈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토착민들 사이에 反 화인 감정이 움트는 시발점이 되었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시기는 여러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화인의 중요한 운명을 결정지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시기를 통하여 화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구조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sup>48)</sup> 이제 이들은 단순한 행상이나 소매상인의 지위를 넘어 도매업, 유통업, 금융업, 그리고 주요 토착산업까지 장악하였다. 또한 도시 바깥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화인들의 주거제한령이 20세기 초에 풀리면서 농촌으로의 침투도 본격화 되었다.<sup>49)</sup> 화인들의 자본이 농촌에 투입되면서 농산물을 담보로 한 고리대금업이 횡행한다. 출하할 작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즉각적인 손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점차 농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농토 없는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 네덜란드인들과 서양인들이 공황, 제 2차 세계대전, 독립전쟁, 경제민족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쇠퇴, 몰락하게 되는 와중에 화인들은 그들이 내 준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골격을 이루고 정점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sup>50)</sup>

---

48) M. R. Fernando and David Bulbeck. eds., *Chinese Economic Activity in Netherlands India: Selected Translation from the Dutch*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s Studies, 1992), pp.253-259.

49) Mary F. Somers Heidhues, 박은경 옮김, 『동남아시아의 화교』 (서울: 형설, 1993), p.26.

50) 신윤환, 앞의 책, pp.428-451.

#### (4) 수난기: 화인정치 혼란

화인들의 수난기로 규정되는 1930년부터 1965년까지 화인들은 다양한 정치경제 체제와 화인정책을 경험했으며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지속적으로 맞닥뜨려져야 했다.

식민지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 1930년대의 대공황기는 화인들에게도 그 타격이 엄청났으며, 그 이전 수 십년 동안 급증하던 중국인들의 유입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동남아로 진격한 일본군이 3년간 점령하였는데, 이 시기 동안 화인들은 중국의 적대국이었던 일제로부터 각종 탄압, 착취, 감시를 받아야 했다. 아흐메드 수카르노(Ahmed Sukarno)와 모함마드 하따(Mohammad Hatta)에 의한 인도네시아 독립 선포 이후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은 다시 돌아왔고, 독립전쟁이 4년간 지속되었다. 화인들은 네덜란드와 공화국 양편 사이에서 혼란과 분열을 겪었으며, 전쟁의 혼돈 속에서 그들의 경제생활은 위축되었다. 1949년 인도네시아는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를 지배한 첫 15년 동안 토착엘리트들은 유럽인과 화인들의 경제적 지배를 종식시키고자 다양한 차별정책을 시도했고, 수 세에 몰린 화인들의 상업활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1959년 이후 인도네시아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간 화인의 수만도 10만 명이 넘었다. 30년에 걸쳐 이어진 대공황, 일제점령, 독립전쟁, 국가건설 모두는 화인들에게 무척 가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인들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훗날 수 하르또의 신질서체제가 수립되자 35년의 수난기를 견뎌 낸 화인들은 오히려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군부나 집권엘리트집단과의 결탁으로 화인들은 토착기업인들과는 다른 생존방식을 취한 것이다. 즉 경찰, 행정관리들은 보호를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고 정치가나 행정가들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화인들은 자신의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배집단과의 결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51)</sup>

네덜란드인들이 떠난 인도네시아에서 화인들은 경제체제의 핵심, 사회구조의 정점,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인도네시아 화인사를 돌아켜보면, 화

---

51) Mary F. Somers Heidhues, 박은경 옮김, 앞의 책, pp.50-52.

인들은 자신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강요했던 시기가 지나가면 더욱 그 위상이 강화된다는 역설이 항상 성립한다. 1929년 공황 이후 1965년 수카르노의 몰락까지가 화인들에게는 바로 이 수난의 시기에 해당한다.<sup>52)</sup>

#### (5) 성숙기: 화인들의 경제적 지배

수하르또는 사회주의 모형으로부터 시장경제 모형으로 그 발전전략을 수정했는데, 이는 화인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화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응했고, 중소 상인 및 생산자의 위치에서 대규모 금융, 상업, 산업 자본가로 급성장했다. 신질서체제가 일궈낸 연평균 7% 경제성장의 주역은 화인들이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는 화인의 참여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구조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과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하르또 정권 30여 년 동안 화인들의 조직적 정치활동은 허용되지 않았고, 그들의 언어(중국 동남부 방언과 만다린) 능력은 상실되었으며, 화인 정치인이나 관료는 수하르또 정권에 의해 등용되지 않았다.<sup>53)</sup> 또한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위치가 결코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토착사회의 화인들에 대한 반감과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국가 또한 토착사회의 지지를 의식하여 화인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화인 부문 간의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화인집단에 대해 경제적 특혜와 정치적 안정을 보장했으며, 그 대가로 화인들은 국가에 대해 경제발전이라는 성과와 재정적, 정치적 자원을 제공했다. 또한 국가와 토착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과에 의한 정당화와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심각한 긴장이나 위기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해왔다.<sup>54)</sup>

---

52) 신윤환, 앞의 책, pp.452-463.

53) Benedict Anderson, "Old State, New Society: Indonesia's New Order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Studies*, 42(3), 1983, p.491.

54) 신윤환, 위의 책, pp.463-468.

## 제 2 절 화인의 분류와 인구

### 1. 화인의 분류

인도네시아에서 화인을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비록 토착민과 결혼하여 중국인의 혈연을 적게 갖고 있을 지라도 그들 스스로나 타인에 의해 중국계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순수 중국계의 혈연을 가지더라도 스스로가 인도네시아인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그들 스스로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중국어를 읽고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sup>55)</sup>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내 중국인들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범주는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sup>56)</sup>

#### (1) 빠르아나칸(Peranakan)

중국에서 동인도 섬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을 조상으로 한 혼혈인으로 중국 남성들이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동화되고 영구 이주자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빠르아나칸 화인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순수 중국계 후손인 또뚝 화인보다 타 지역 화인 인맥과의 접촉이 적었다. 그 결과 빠르아나칸 화인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화인 인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게말라(Gemala) 그룹은 소피안 와난디(Sofyan Wanandi)가 이끄는 빠르아나칸 와난디(Wanandi) 가문이 경영하고 있다. 인종적으로는 화인이지만 원래 수마트라 출신인 와난디 가(家)는 가톨릭이며, 미국, 호주, 스위스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의 화인 네트워크를 통한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국, 미국, 호주 등 서구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대다수의 빠르아나칸은 화인사회의 이질성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으며, 화인사회의 정치적 취약성으로 작용하였던 또뚝의 부(富)를 비난하기도 하였다.<sup>57)</sup>

55) 美 의회도서관, [http://lweb2.loc.gov/cgi-bin/query/D?cstdy:5:./temp/~frd\\_m25A](http://lweb2.loc.gov/cgi-bin/query/D?cstdy:5:./temp/~frd_m25A).

56) University of Maryland, [www.bsos.umd.edu/cidcm/mar/idschi.htm](http://www.bsos.umd.edu/cidcm/mar/idschi.htm).

5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9, 1998.

## (2) 또뚝(Totok)

19세기 이후 20세기 동안 네덜란드의 농장, 채광산업을 위해 노동자로서 중국에서 건너온 자를 조상으로 하는 순수 중국계 후손을 말한다. 자신들의 종족 관습과 언어, 공동체와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가 단일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향하면서 종족 정체성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sup>58)</sup>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각 가구마다 사당을 통해 중국문화를 지켜내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뚝 화인은 인도네시아 이외의 화인들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뚝 출신으로 사림(Salim) 그룹의 리엠 시오에 리옹(Liem Sioe Liong), 리뽀(Lippo) 그룹의 모히따르 리아디(Mochtar Riady), 시나르 마스(Sinar Mas) 그룹의 예까 뎀따 위자자(Eka Tjipta Widjaja) 등 저명한 기업인들이 많다.

## 2. 화인 인구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인 자체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정되었기 때문에 화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부재하다. <표 3-1>은 인도네시아의 대략적인 화인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2003년까지 약 3.1% 정도로 아주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가 아닌 추정치가 포함된 것이다.

---

58) 박현욱·박정동, 『한국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3), p.36.

<표 3-1> 인도네시아 내 화인 인구

연도	화인인구(천명)	총인구(천명)	비율(%)
1905	563	37,717	1.49
1920	809	49,350	1.64
1930	1,233	60,728	2.03
1956	2,200	91,211	2.41
1961	2,450	97,085	2.52
1974	3,250	129,120	2.52
1990	4,484	179,379	2.52
1995 <sup>59)</sup>	5,400	201,500	2.7
2003 <sup>60)</sup>	7,300	235,500	3.1

출처: 신윤환, “인도네시아의 화교와 화교자본: 수하르토 집권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2(4),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3), p.5.를 재구성.

### 제 3 절 화인의 문화적 특징

다종족사회나 국가에서는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가 존재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는 개별 소수종족의 고유문화가 다종족사회의 하부문화(Sub-Culture)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종족의 문화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기도 함과 동시에 소수종족은 고유문화를 유지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수종족과 결부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변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정부의 對 화인억제정책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했다. 그들은 중국인 전통의 혈연·지연·업연을 바탕으로 한 화인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활용하여 생업에 종사하였으며, 토착민과는 다른 종교활동을 보호막으로 하여 공동체를 지속시키려 했다. 결국 지배적인 문화로의 동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정치적 차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인의 전통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5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3, 1998.

60) [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hinese](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hinese).

## 1. 상관습(商慣習)의 일반적인 특징

### (1) 화인의 종족적 성향(性向)

화인들은 토착민에 비해 개인 이기주의 성향을 지닌다. 이는 화인들이 가지는 중국인적 성향의 하나이다. 대개 화인들은 가문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책임감을 가지지만 국가나 사회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은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그 가문이라는 것도 단순히 개인주의를 확대시킨 형태이다.<sup>61)</sup> 내적으로는 협력관계와 상호부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갖고 있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모택동(毛澤東)과 중국공산당에 의해서 행해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중국인의 개인주의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의 의식 있는 일원이 되게 하고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 시켜야 모든 국민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국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정책과 함께 밝혀지게 된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인의 개인주의적 경향은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단지 억압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이 억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직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욕망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개인들이 조직에 충성할 때에는 그 조직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은 커지만 개인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에는 조직에 있어서 개인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해 지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들이다. 중국인들이 유가사상과 도교와 불교를 접목하여 독특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체질화 하였듯이, 화인들은 상당수가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에도 중국 고유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러한 종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의(衣), 식(食), 주(住)’라 하고 중국인들은 ‘식(食), 의(衣), 주(住)’ 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나 집보다는 음식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다시 말해 중국인은 외면(外面)

---

61) 임어당, 심혜진 옮김, 『중국, 중국인』 (서울: 장락, 1995), p.211.

보다는 내면(內面)을 중시해 자신을 외부세계로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sup>62)</sup> 이러한 중국인의 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우선 의심이 많은 중국인의 뿌리 깊은 불신감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신과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내부로 향해 있는 독특한 “내면적 자아의식(內面的 自我意識)의 발로”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내면적 사고방식은 인도네시아 화인들에게서도 나타난다. 화인기업들은 기업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며, 혈연·지연·업연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에 활용한다.<sup>63)</sup> 중국인들은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를 드러내 놓는다. 반면 이러한 돈에 대한 집착은 배금주의(拜金主義)라는 의식을 낳게 했다. 정치와 군대로부터 배제된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경우 돈에 대한 집착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외국혐오증(外國嫌惡症)’과 ‘외국선호증(外國選好症)’이라는 상반된 대외국가관(對外國家觀)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한 사회집단이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배척적·적대적 태도 내지 심정을 의미하는 ‘배외주의(排外主義)’의 형태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타 사회집단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는 ‘배외주의(拜外主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인의 양면성과 이중성은 중국인의 협상술(協商術)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중국인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당황하게 한다.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각 국가를 ‘고배경문화(高背景文化)’와 ‘저배경문화(低背景文化)’의 개념으로 이원화하였다. ‘고배경’적인 메시지는 오직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배경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배경문화국(高背景文化國)’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이 ‘고배경문화국’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은 전형적인 ‘고배경문화국’에 속하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내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도 자신들끼리는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상호간 이해가 도출 될 수 있으나 외국인들 특히 ‘저배경문화(低背景文化)’인 미국인들에게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sup>64)</sup> 이러한 이유로 화인들은

62) 김희연, 『중국인의 상관습과 협상요령』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997), p.359.

63) Leung Frankie Fook-Lun, “Overseas Chinese Management: Myths and Realities,” *East Asean Executive Reports*, 17(2), 1995, p.6.

자신들과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지닌 동향(同鄉) 기업들과 공동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사업하기를 선호하며 중국 진출에 적극적이다. 다시 말해 동향 관계에 있는 화인들이 상호 협조하여 고향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고배경적인 메시지의 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2) 인척을 중심으로 한 상업조직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상(商)관행은 중국의 자연환경 그들의 종교, 역사적 경험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농경문화를 유지하여 왔던 중국인들이 부계사회 위주의 생활 양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 같은 전통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난 후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종교는 그들에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전쟁의 상처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옆의 사람도 적이 될 수 있다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현금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sup>65)</sup> 화인기업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선진국에 자산을 분산시키고, 현재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국에 투자하며, 장래의 높은 미래 수익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 같은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 전통, 정치 사회적 격동은 그들의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마디로 화인의 생활 및 기업 양태는 가족중심주의라고 요약될 수 있다.<sup>66)</sup> 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화인들은 보통 상하 구분이 엄격함과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가깝거나 먼 사이를 구분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 소유권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게 되며, 만약 그들이 하나의 주식회사를 만들기를 원하면 가족들의 사업은 하나로 합

64) E. T. Hall, "The silent Language in Overseas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60, pp.87-96.

65) 이문봉, 『동남아 화교기업』 (서울: 길벗, 1994), p.44.

66) S. Gordon Redding,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New York: Water de Gruyter, 1990), p.225.

쳐지기 쉽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인 사회에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 혹은 가까운 친척을 고용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다. 어느 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고용원 신분의 사람들이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고용주와 함께 세부적인 방법을 배우면서 일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원 신분의 화인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헌신적으로 충실하며 고용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수행해 나간다. 조건없이 부여하는 요구와 후원,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수하르또 정권 하에서 화인 기업가들이 정부로부터 토착민들을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척관계에 기본을 두고 있는 상업상의 전통 때문이었다.<sup>67)</sup>

화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라인 조직이 선호되어 스태프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다. 사업분위기도 가족적 분위기로 운영된다. 그리고 소유욕이 강하여, 소유 지분에 있어서도 대주주를 고집하거나 기업공개를 꺼려한다.

화인기업들의 기업 경영 방식을 다소 세분하여 보면, 먼저 기획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외부에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 방식을 취한다. 특히 구매, 판매, 재무 등 돈과 관련된 기능은 대체로 가족이 직접 관할한다. 또 다른 부서에도 곳곳에 친인척과 관련된 측근 인사들을 배치한다. 조직 및 개인평가지 업무의 과정보다 결과에 따른 실적을 중시한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가족주의 경향으로 다소 비조직적이다. 그러나 가능한 조직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사장은 종업원들을 가정에 초청하는 등 일체감 조성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개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백한 구분이 없다. 가족 외 고용원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신상필벌이 분명한 면도 가지고 있다.

---

67) 양승윤,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pp.341-342.

화인의 가족 경영 형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수직적 협력 여지, 수평적 협력 여지, 통제의 효율성, 환경에 대한 적응 정도 등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68)</sup>

첫째, 상하관계(수직적 협력) 차원에서 가족 경영은 사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그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소유는 특정인에 집중되어 있으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참여하는 경우 소유인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원하여도 경영자의 한계상, 경영인은 단기적 실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점이 화인의 가족 경영에서는 없을 수 있다. 또한 상하관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상하간 틀을 구축하는 데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직원과 소유주의 친분관계에 따라 과벌이 형성되어 비측근 종업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회사 분위기가 종업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욕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 또 조직원간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에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둘째, 수평적 협력 차원에서는 가족 경영은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 형태가 많은 대만의 경제가 한국에 비해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만의 거래비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인맥관계간 신뢰성이 높고,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도 높다. 이에 비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고, 조직원간 불신이 표면화되면 이 또한 경영에 부담이 된다.<sup>69)</sup>

셋째, 소규모의 가족 경영은 기업통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가족 분위이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통제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구조하에서는 관리 수단이 중립적·전문적이지 못하고, 무엇과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등 적지않은 문제점도 표출된다. 이로 인해 종업원들이 기업활동에 적극성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68) 이문봉, 『동남아 화교기업』 (서울: 길벗, 1994), pp.47-48.

69) Andrew Tanzer, "The Bamboo Network," *Forbes* July 18, 1994.

넷째, 가족 경영 형태의 장점 중의 하나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소수의 결정이 여과없이 집행되어 그것이 잘못되면 기업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 2. 화인들의 전통적 종교관

우리나라의 유·불·선의 전통이나 영적 체험 및 내세를 강조하는 기성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들의 종교적 태도는 이단이거나 미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내세와 초월적인 존재보다 현세와 실재를 지향하는 불가지론(不可知論), 도구주의(道具主義)적 입장을 견지한다.<sup>70)</sup> 또한 중국의 종교는 타 종교에 대하여 특이할 만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종교문화는 매우 관용적이며 포용성이 풍부하였다. 일례로 인도에서 유래된 불교가 한자로 번역 전파되면서 도교와 융합된 중국적 불교로 승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종교관과 종교적 태도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인종교라고 할 수 있다.

화인종교는 불교·유교·도교를 중심으로 여러 종교의 요소들을 혼합한 것이다.<sup>71)</sup> 특히 해외 화인들의 화인종교는 지방신을 섬기거나 이슬람교의 요소까지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절충주의나 관용성을 보이기도 한다.<sup>72)</sup> 인도네시아의 화인종교는 ‘클렘텡(Klemteng)’이라고 불리는 사찰과 각 가정에 마련된 재단에 모셔진 여러 ‘신’들에게 재물·건강·안전·출산 등을 기원하는 것이 요체를 이룬다.

화인종교에는 다양한 종교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요소들은 모두 중국인들에게 실용주의적이며 도구주의적인 목적으로 해석되고, 해탈이나 구원 등 초월

---

70) 신윤환,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종교: 적응과 변용,” 『동남아의 종교와 사회』 (서울: 오름, 2001), p.215.

71) Kuntjaraningrat, *Kebudayaan dan Manusia di Indonesia* (Jakarta: Penerbit Djambatan, 1990), pp.367-368.

72) Donald Earl. Willmott, *The Chinese of Semarang: A Changing Minority Community in Indone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0), pp.182-194.

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속성이나 원리는 외면된다. 상이한 종교·전설·신화·역사 속에서 다양한 지위를 갖는 여러 신·선지자·영웅들이 숭배대상이 되며, 이 ‘신’들은 각각 번영·건강·안전·다산·치료 등 현실적·실용적 도움을 인간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불교의 해탈과 자비, 유교의 삼강오륜, 도교의 초월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처·보살·창시자·신선·도인 들을 재산·안전·건강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격상하여 숭배한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신도와 ‘신’들 사이에 기원과 행운을 교환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양자적인 교환관계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한때 상권의 중심이었던 중부 자바 도시 ‘스마랑(Semarang)’에서 가장 많은 화인들이 찾는 ‘타이각시(Tay Kak Sie)’는 화인종교의 이러한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열여섯의 ‘신상(神像)’들로 불교·도교·유교의 신·도인·신선·성현들이 모셔져 있으며, 이 신상들 속에는 화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신’ 중의 하나인 ‘관우(關羽)’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열여섯 ‘신’들은 제각기 관장하는 복(福)을 제공해 준다고 믿어지며, 이러한 믿음은 이 ‘신’들의 경전적·역사적 기원과 무관하거나 유리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sup>73)</sup>

한편 최근 화인사회에서 기독교화 추세가 돋보이고 있다. 기독교가 제공한 탁월한 교육제도와 복지기능이 실용주의적인 화인들을 유인했던 게 확실하다. 게다가 정치적 단체활동 일체를 금지당한 화인들이 종교활동을 보호막으로 하여 공동체를 지속시키려 했던 점도 이들의 기독교화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화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중국 고유 전통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화인 기독교인들은 조상숭배를 종교로 보지 않아 선조에 무덤을 찾고 제사를 모시기도 하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가톨릭 교도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어떤 가정에서는 재단을 두고 중국의 전통신들을 모시기도 한다. 화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관용성은 중국인 고유의 절충주의와 도구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모든 종교나 신앙체계는 인간들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해 버린다.<sup>74)</sup>

---

73) 신윤환, 앞의 책, p.216.

74) Donald Earl. Willmott, 앞의 책, p.182.

### 3.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

유교에서는 배움을 신앙과 같이 숭상하며, 그 배움은 사회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유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자기수양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군자(君子)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의 교육중시 사상은 중국의 지적 문명을 가능케 한 토대였고, 중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난 후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심지어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도 자녀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9세기 이전에 인도네시아 화인 아동을 위한 교육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1854년 법령은 토착민들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었다. 그러나 얼마 후 네덜란드어를 잘 하고, 학교에 공석이 생기고,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화인들에게도 그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화인들에게 자신들이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의해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1900년 이래로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현대화된 중국식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자카르타의 중국 상인들의 조직인 시양웨이(商會)의 도움으로 중화회관(中華會館)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학교는 중국인 후세 교육에 대한 필요성 자각과 화인들이 중국의 전통 관습과 역사, 문화와 사회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1년에 이르러 분교 수가 93개에 이르렀다.<sup>75)</sup>

중국 전통의 냄새가 짙은 이 중국식 교육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1908년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 네덜란드식 화인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학교는 입학 대상을 화인 아이들로 한정시켰고, 인도네시아 토착민이나 다른 종족의 아이들이 입학할 때는 반드시 학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사실상 화인 이외에 이 학교에 입학한 예는 없었다. 학교의 교과과정은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과정과 동일하였으며, 수업은 네덜란드어를

---

75) Kuntjaringrat, *Kebudayaan dan Manusia di Indonesia* (Jakarta: Penerbit Djambatan, 1990), pp.369-370.

사용하였다. 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토착민 아이들에게 필수조건으로 요망한 기초 네덜란드어 사전 습득이 화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기초적인 네덜란드어 지식이 없더라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별개의 수업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어를 구사하는 화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수업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네덜란드식 중국 학교의 건립은 화인을 위한 폭넓은 교육을 약속한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조치였다. 상급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화인은 네덜란드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 중 대다수는 인도네시아 보다는 네덜란드 등 서구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인 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sup>76)</sup>

---

76) 양승윤, “인도네시아 華人の 文化的 背景에 關한 考察,” 『논문집』 29(2), 한국외국어대학교, 1996, pp.150-151.

## 제 4 장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 원인

한 국가나 지역 내에서 다수와 소수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 잘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수-소수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나 갈등요인으로 인해 충돌과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그 충돌은 유혈사태나 폭력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학살이나 인종청소가 일어나기도 한다.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들은 영토분쟁, 부족한 자원공유의 실패, 인위적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 재배치, 문화적 정체성의 부정, 종족정체성의 위협, 인종적 편견, 사회·경제적 차별, 종교적인 열정, 이데올로기의 차이, 약탈을 위한 침략 등이고 한 가지 요인에 의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77)</sup>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이 국가내 종족갈등의 가장 심각한 사례이며,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을 통해서 국가해체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은 문화적 차이나 종교적 차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원인이 사실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제 1 절 경제적 격차

화인기업에게 네트워크와 후견인-수혜자 관계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다. 나아가서는 기업의 핵심역량(경쟁력)이 되고 분명한 경쟁우위가 되어 높은 성과를 낸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이용할 수 없는 배제된 계층에게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토착민과의 새로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78)</sup>

77) 손주영, “이슬람권 소수민족 분쟁의 역사·문화적 배경,” 『중동연구』 제 18-2권,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999), p.8.

78) 박번순,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서울: KIEP, 2001), p.28.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화된 토착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화인의 경제 활동과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다.<sup>79)</sup> 이러한 정부의 억압적인 공식 조치는 화인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주와 그 재산 보호를 위한 자기 방어적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다.<sup>80)</sup>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의 불일치는 오랜 계급간, 종족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각종 정책과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1. 화인의 경제적 성장 배경

### (1) 화인사회 특성으로서의 판시(關係, Network)

인도네시아에서 화인기업들의 행동양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업활동이다. 화인기업의 네트워크는 흔히 ‘대나무 네트워크(Bamboo Network)’로 알려져 있다.<sup>81)</sup> 동남아에 진출한 화인들은 초창기에 현지사회로부터 유무형의 종족차별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화인사회는 혈연, 지연, 업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이것들의 구체적 표현 형태인 ‘동성(同姓)’, ‘동향출신자(同鄉出身者)’ 등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아 화인사회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동성, 종족(宗族) 조직인 모씨총회(某氏總會)와 종사(宗祀) 등의 종친회(宗親會), 동향출신자 조직인 회관(會館)과 동향회(同鄉會), 동업조합(同業組合)인 공회(公會)가 유지되고 있으며 각각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관은 도시에 밀집된 상인들 가운데 같은 고향출신들끼리 결성한 단체로 객방(客幫)이라고도 한다. 회관이 주로 거대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

---

79) Amy L. Freedma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thnic Minorities: Chinese Overseas in Minorities, Indonesia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Routledge, 2000), p.108.

80) E. K. B. Tan, “From sojourners to citizens: managing the ethnic Chinese minority in Indonesia and Malaysia,” *Ethnic and Racial Studies*, 24(6), 2001, p.951.

81) Andrew Tanzer, “The Bamboo Network,” *Forbes* July 18, 1994.

였으나, 동향회는 중소 상인 및 기타 직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82)</sup>

화인사회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향관계(同鄉關係)이다. 동향관계가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에는 방언이 다수이며, 그 차이가 극심해서 타지방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동일한 언어 사용이 집단구성에서 주요 매개고리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향의 범위는 동일한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으로 규정되며, 그 때문에 다소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을 갖는다. 동향인 집단은 동향방(同鄉幫)이라 호칭되며, 서구적인 개념으로는 방언별 집단(Dialect Group)을 의미한다. 같은 중국인이더라도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동향방에 속하는 사람은 광동방(廣東幫)에 들어가고 싶어도 고유언어인 광동어가 통하지 않아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동향방에 속해있는 사람이 방언인 광동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동향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성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 동족으로서의 관계를 구축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화인사회의 구성원리는 강철처럼 견고한 인간관계로 구축된 관계주의(關係主義)이다. 즉 ‘동류(同類)’의 원리가 작용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종친회나 동향회도 ‘류(類)’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일정한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이런 조직을 통해 동류로서의 네트워크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류’의 원리가 작용하는 계기가 바로 ‘판시’에 있다.<sup>83)</sup> 이렇게 볼 때 혈연, 지연, 업연, 학연 등은 동류 관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며, 집단 내부의 강한 응집력(凝集力)·공유의식에 반해 외부에 대한 강한 배척심과 무관심을 양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더욱 견고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조직의 유대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치적 제약을 받아 화인사회 내부의 응집력이 필요했던 화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향은 체질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연결고리로서 위

---

82) R. S. Rawski, “Research Themes in Ming-Qing Socioeconomic History: The State of the Field,”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1991, pp.88-90.

83) 김익수, “日本企業의 90年代 對中直接投資 戰略,”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 動向과 戰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p.117-118.

와 같은 조직의 성향은 변함없이 화인사회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84)</sup>

그렇다면, 네트워크가 화인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네트워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족체제와 네트워크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자본, 산업적 혁신과 기술의 부족을 대체하였다. 역사적으로 화인들은 창업을 할 때 자본과 정보를 얻기 위해 친구나 친척, 특히 동향인들에게 의존하였다. 창업 초기에는 상업적으로 사회적 신용이 없기 때문에 화인 사회 내의 사적 상호보조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85)</sup> 대표적인 조달 방법의 하나로 오랫동안 ‘계’가 이용되어 왔다. 이것은 참가자가 같은 금액의 자금을 걸어서 기금을 만들어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이자를 제시하는 경쟁 입찰 형식에 의해 가장 비싼 이자를 제시한 참가자에게 이 자금의 우선 사용권이 주어지는 시스템이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는 사람의 담보로 제 3자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은 또 하나의 자금 조달 수준으로 이러한 방법은 개인 對 개인의 신뢰 관계가 전부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자기 자금이 부족하여 소요 자금이 증대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등의 신용 기관에 용자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화인 단체가 담보하는 사례도 자주 있다.<sup>86)</sup> 또한 화인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비용의 삭감, 시장의 개척, 경제효과 배증(倍增)에 직결하는 효과를 얻는다. 거래비용이란 시장에서 행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시간, 거래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손실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를 위한 정보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보가 부족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끼리 서로 연결됨으로써 외부 효과가 더욱 큰 네트워크로 확대된다.<sup>87)</sup> 한

84) 김영래(외), 『동남아 화교자본의 경영특성과 이들과의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방안의 모색』 (서울: 국제무역 경영연구원, 1998), pp.26-27.

85) Kunio Yoshihara,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46.

86) 왕샤오핑·박정동, 『화인형 기업경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4), p.149.

87) Wu Wei-ping, "Transaction Cost, Cultural Values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an Integrated Approach," *Chinese Business Net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2000), p.47.

편 네트워크는 종족과 국제적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통해 국경과 국가의 정책을 뛰어 넘는다. 초창기의 해외 진출은 화인기업간의 사업 제휴나 합작 등을 통해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통한 투자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화인기업은 현지 종족과의 동화나 사업 협력 보다는 다른 나라에 있는 화인과의 판시를 더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협력을 하고 있다.

## (2) 유교자본주의

유교사상은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인의 가치관, 심층 심리를 형성하고 잠재의식의 일부를 이루어 왔으며 도교 등의 원시 종교와 함께 조상 숭배, 경로, 충성, 효행 등 집단생활 윤리로서 전해져 왔다. 해외 화인의 가족주의, 자녀 교육 중시, 사업 달성 의욕의 고양, 가족에게 사업 상속 등은 이러한 논점을 근거로 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가정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부모에 대한 효행,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인생의 목표도 가정 내 인간관계의 유지와 증진에 있다고 여겼다. 가정 내에서 개개인의 구성원은 가족과 친밀한 유대관계, 한 집안 단체를 구축하는 형태로 사회 조직의 기초를 만들어 나간다. 이와 같은 유교의 가족중심주의 가치관은 해외 화인의 경영 문화에서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 바탕에 전통적 문화관, 유교적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다.<sup>88)</sup>

한편 유교가 가르치는 근면, 성실의 노동윤리가 자본주의와 친화적 결합을 일으켜 화인의 경제적 성공을 가능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국민들이 근검절약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근면하여 높은 저축율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sup>89)</sup> 이것은 오래도록 유교의 가르침에 의해 교육된 노동자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물건을 아끼는 것을 삶의 도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

88) 리잉커, 『유학과 중국인』 (서안: 산시사범대학출판사, 1989): 왕샤오핑·박정동, 앞의 책, p.149.에서 재인용.

89) Tai Hung-Chao 외, 구범모 옮김, 『공자의 경제학』 (서울: 한세, 1996), pp.53-55.

이다. 이와 같은 유교의 가르침은 논어(論語)의 ‘학이(學而)’ 편에 나오는 “경사이신 절용이위인(敬事而信 節用而爲人)” 즉 “일은 신중히 그리고 신용있게 하고, 쓰임새는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으로 시작되었다. 유교의 성경(誠敬) 사상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동아시아의 근면한 노동자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이러한 윤리적 가르침에 의해 동아시아에서는 낭비와 사치를 악덕으로 여기고 사치스러운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관습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다. 나아가 안정적인 노사관계 역시 유교 문화의 전통으로 설명된다. 조화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의 사상이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주를 부모처럼 따르게 하며 기업가로 하여금 노동자를 사랑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 내의 경영자와 노동자는 이윤극대화만이 아니고 이윤과 인화(人和)를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강오륜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구별하고 분수를 정하여 사회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였던 유교 윤리는 지배와 피지배를 따지기 보다는 분담해야 할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주를 부모와 같이 믿으며, 집단의 이익이 개인에 선행하므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희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도록 했다고 부연하고 있다.<sup>90)</sup>

유교는 자연과 사회의 문제를 모두 인간본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사회성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질서는 인간본성의 실현을 통해 확립된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를 알고 실천하는 인간수양의 방법이 ‘거경궁리(居敬窮理)’인데 이는 “마음을 성찰하여 마음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맑고 경건한 상태에 머물게 하여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하고, 이와 같은 거경 상태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향해 널리 만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하여 정확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유교의 인간관은 유교사회에서 지적 성취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여 교육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sup>91)</sup> 교육에 의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장기적이며 많은 비용이

90) 주성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유교문화,” 동북아경제연구 11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9, pp.12-19.

91) 유태건, “유교와 경제발전-경제성장에 대한 유교의 적응성을 중심으로,” 부산정치학회보 제 8집, 부산정치학회, 1998, p.150.

들지만, 그 이익은 크고 누적적이며 투입된 비용을 넘어서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교육은 지적수준의 향상을 통해 경영능력, 기술수준, 작업능력 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신기술도입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거경궁리’가 유교의 내적 성취동기라면, ‘외왕지도(外王之道)’는 교육에 대한 강력한 외적 성취동기이다. 여기서 ‘외왕’이란 군중을 선도하는 최고 이상에 도달하여 천하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즉 안인(安人) 하는 왕자(王者)의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상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외왕’의 도는 관료가 되어 백성들을 안락하게 만들거나 학자가 되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일을 지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교의 성취동기는 ‘타자지향성(other-directedness)’과 결부되어 전통적인 유교사회가 서양의 발전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를 수용하여 잘 적응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행위의 강한 심리적 요인이 되는 타자지향성은 유교에 있어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실천적 특성 속에서 찾아진다. ‘인(仁)’의 실천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측면은 ‘충(忠)’이며 소극적인 측면은 ‘서(恕)’인데, 이때 ‘인(仁)’의 실천에 있어 그 주체는 타자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마땅함’을 추구하는 ‘의(義)’의 실천은 개인이 처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구체적 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는 유교의 인간은 항상 ‘타자(他者)’ 또는 외부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예(禮)’에 있어서, 그 실천방식은 여러 인간관계나 의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정립되는데, 이는 상황 중심적이고 타자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知)’의 실천적 특성이다. 유교에 있어 지식을 이루는 방법은 마음 밖의 사물이나 현상 속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교의 인식론적 입장은 인식대상의 객관성을 인정하고 있어 ‘지(知)’의 실천 또한 타자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sup>92)</sup>

---

92) 유태건, 앞의 책, pp.151-153.

이처럼 유교가 가르치는 근면, 성실의 노동윤리와 ‘타자지향적’ 자세는 화인의 경제적 성공에 밑바탕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인들은 소수 종족으로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용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자원의 상호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혹은 정보, 자금, 기술 등의 자원을 제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sup>93)</sup>

### (3) 후견인-수혜자 관계

화인들의 경제적 성공의 원인으로 토착 정치엘리트와 기업가 사이의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기업 관계와 자본가 계급의 형성과 발전에 주목하였던 신윤환은 정실체계를 “정치적인 후견인(Patron)과 경제적인 수혜자(Client)가 지대를 분점하기 위해 제휴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한 정실관계가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자본가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자본가 계급으로 성장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 체계를 통해 자본가 유형을 구분할 경우 <표 4-1>의 여섯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sup>94)</sup>

여기서 자본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은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 직접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정실체계가 간접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후원의 방식은 ‘비공식적’에서 ‘공식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는 ‘배타적’인 것에서 ‘포괄적’인 범위로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

93) Clinton Barton, “Trust and Credit: Some Observations Regarding Business Strategies of Overseas Chinese Traders in South Vietnam,” Linda Y. C. Lim and Petergosling(eds.),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Vol.1 (Singapore: Maruzen Asia, 1983), pp.157-178.

94) Shin Yoon Hwan, “Demystifying The Capitalist State: Political Patronage, Bureaucratic Interests, and Capitalists-information in Soeharto’s Indone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9), p.407.

<표 4-1> 부패한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통해 본 자본가 유형

후견인의 유형 수혜자의 범위	후원의 방식, 법적·제도적 근거	
	비공식적	공식적
개인후견인 배타적 특정인/기업	1)쭈푹(cukong) 형	소주주형
기관후견인 배타적 특정인/기업	전문경영인형	독점기업형 공사합작형
포괄적 다수인/ 기업	수의계약자형	정책수혜자형

1) ‘쭈푹(cukong)’은 master를 뜻하는 호키엔 방언이며, 넓은 의미로 우두머리나 후견인, 고문, 사업에서 뒤를 봐주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이는 개인 후견인이 배타적으로 특정인이나 기업을 비공식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유착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패한 형태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착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대는 중국인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였으며 수하르토 체제에서 국가엘리트와 유착하여 축제한 모든 화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출처: 신윤환, “현대적 형태의 원시축적: 인도네시아 재벌형성과정에 관한 일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27권 2호, 한국정치학회, 1989, pp.260-263.

인도네시아에선 사림 그룹, 밍 하산 그룹 등이 수하르토 정권과 후견인-수혜자 관계에 있었다. 사림 그룹은 정부 독과점 보호를 통해, 밍 하산 그룹도 합판산업 독과점으로 성장했다.<sup>95)</sup> 이들은 반대급부로 대통령 친인척에게 자신들의 자산을 무상으로 공여하기도 한다. 한 때 사림 그룹은 ‘센트럴아시아은행’의 주식 30%를 수하르토 자녀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사림 그룹의 주력사업은 식품, 건설자재, 자동차, 부동산, 화학, 금융이며 자카르타, 홍콩 등에도 거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재벌인 사림 그룹의 창업주 리엠 시오에 리옹은 1945년부터 4년간의 인도네시아 혁명시대에 경제봉쇄를 당한 자바섬에서 對 네덜란드 독립군에 식료, 의료품, 무기를 운반해 軍 관계자와 지면을 넓혔다. 수하르토와 친밀하게 된 것은 수하르토가 1956년 중부자바 수마트라 사단장 시절부터이며 군납과 특정 제품의 독점판매권 획득으로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다.<sup>96)</sup>

95) M. Hadi. Soesastro, “The Political Economy of Deregulation Indonesia,” *Asian Survey*, 29(9), 1989, p.863.

96) 이문봉, 『동남아 화교기업』 (서울: 길벗, 1994), p.205.

사립 그룹의 사업기법은 이윤이 있다면 분야를 불문하고 군부·정계와의 강한 연계를 배경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정부용자 등 국가의 보호조치를 얻는 것이 특색으로, 1960년대는 상업중심이었으나 70년대에는 제조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사립 그룹은 ‘쿤차나은행’, ‘센트럴아시아은행’, 해외투자회사인 ‘림 인베스터스’, 지주회사인 ‘사립 사(社)’를 4개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홍콩을 거점으로 한 사업전개를 강화하고있다. 사립 그룹이 홍콩으로 자산의 일부를 옮겨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전체의 투자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사업의 제약이 적다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수하르또 체제 종료시에 대비한 재산보전책(財産保全策)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대형 인도네시아 화인기업에는 토착민 동업자나 회장이 있다. 예를 들어, 리뽀 은행의 회장은 토착 인도네시아인 하심 닝(Hasjim Ning)인 반면 은행의 실질 소유주는 부회장인 화인 모히따르 리아디이다. 또한 앞서 사례에서 언급한 거대 사립 그룹의 총수인 리엠 시오에 리옹은 2명의 화인 동업자외에도 2명의 토착민 동업자가 있다. 화인기업에 공통된 이러한 형태는 ‘알리-바바(Ali-Baba)’ 체제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알리’는 토착민 동업자를, ‘바바’는 화인 동업자를 지칭한다.<sup>97)</sup>

## 2. 화인 자본의 성장 과정

현재 인도네시아 화인들, 특히 기업인들의 상당수는 19세기 후반부 또는 20세기 전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 기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이거나 당사자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화인은 사용언어에 따라 복건인(Hokkien), 광둥인(Cantonese), 대만인(Taiwanes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사업부문에 특화하고 있다.

화인들은 동남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두노동자, 광산노동자 혹은 잡화점의 종업원으로 경력을 쌓았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사업기회를 찾아 나섰다. 현재 화인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부동산, 금융, 유

---

97) Suryadinata, *The Culture of the Chinese Minority in Indonesia*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1997), p.32.

통이다. 그 중에서도 화인이 특히 집중한 분야는 부동산이다. 화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지를 선호했기 때문에 토지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sup>98)</sup>

또한 전당포나 고리대금에서 출발한 화인 기업인들은 동남아의 성장과 함께 근대적인 금융인으로 변신을 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영은행을 제외하면 주요한 상업은행은 대부분 화인 소유였다. 사림 그룹의 소유였던 ‘센트럴아시아은행’은 최대 민간은행이었고, 규모가 큰 ‘다나몬은행’ 등도 화인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다.<sup>99)</sup>

한편 화인들은 업연을 바탕으로 도소매업도 장악하고 있다. 종래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잡화점 등 소매나 농산품의 유통, 수출에 한정되었지만 현재는 백화점,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의 대형소매업이나 수출입업, 나아가 해운업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sup>100)</sup> 도소매업의 경우 화인은 출신지별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여 다른 지역 출신들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 동남아 각국의 대표화인은 서로 다르다. 인도네시아 경우 복건인(福建人)은 화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둥인(廣東人)과 객가인(客家人)은 각각 11.5% 및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화인의 출신지별 장악 업종은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인도네시아 화인의 출신지별 장악 업종

출신지별	주요업종
복건인	고무, 코프라, 커피, 후추, 담배, 수출입업, 플라스틱, 섬유, 의류, 직물, 유리제품, 도자기, 차가공, 의약, 귀금속, 자전거, 인쇄, 호텔, 유흥, 금융업
광둥인	목재, 기계수리, 비누, 제과, 식품통조림, 가구, 철물, 양복, 사진, 다방, 근교농업, 축산, 식당, 전자재, 인쇄, 플라스틱, 유흥업
대만인	운송업, 호텔, 식당, 전자, 종이, 목재, 엔지니어링

출처: S. Gordon Redding,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1993, p.37.

98) 박변순, 앞의 책, pp.17-18.

99) 한국중화총상회 (검색일: 2009. 3. 14) <http://www.kccci.or.kr/work/globallist30.htm>.

100) 김영래(외), 『동남아 화교자본의 경영특성과 이들과의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방안의 모색』 (서울: 국제무역 경영연구원, 1998), p.45.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 체제의 대기업들은 내수산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외국인투자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신규투자에 대한 기업인들의 열망이 늦어 19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중화학공업 부문의 투자를 시작하였다. 수하르토의 2남과 화인그룹인 바리토 퍼시픽(Barito Pacific)이 일본의 마루베니(Marubeni) 등과 합작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찬드라 아스리(Chandra Asri)’가 1995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에틸렌센터를 가동하였다. 또한 사립 그룹도 전통적인 소비재산업에서 석유화학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sup>101)</sup>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 등 성장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가장 인기를 모았던 분야는 전력, 통신, 도로 건설 등이었다. 이들 분야는 국내기업인들이 ‘비오티(BOT: Built-Transfer-Operate)’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비오티’ 형식이란 수주기업이 프로젝트의 기획·설계·건설의 단계를 청부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완성 후에도 그 운영을 맡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프로젝트의 건설비용 등을 회수하고 그 후에 양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위탁측이 다액의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외채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으로서는 메리트가 크다. 전력부문은 외국기업들과 합작을 하는 형태였고 통신부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경쟁을 하였다. ‘비오티’ 방식으로 건설한 도로건설에는 수하르토의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했다. 아스트라(Astra) 그룹의 지주회사의 기능과 주력생산품인 토요타 자동차의 판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스트라 인터네이션(Astra International)은 새로 성장하는 전자업계로 진출을 서둘렀다.<sup>102)</sup>

인도네시아 화인기업은 외환위기 직전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 아직 상업자본적 성격을 가졌던 부동산, 금융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산업자본으로서 중화학공업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경제위기 와중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

101) “KSKSK Putuskan Pola Restrukturisasi Bakri Investindo,” *sinar harapan* February 21, 2002 (검색일: 2009. 3. 21) <http://www.sinarharapan.co.id/berita/0202/21/eko11.html>.

102) Sea-Jin Chang, *Business Groups in East Asia: Financial Crisis, Restructuring, And New Grow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201-205.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진출 업종 구조의 고도화, 경영투명성 제고, 해외사업 강화 등으로 외부충격에 대응해 나가며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sup>103)</sup>

### 3.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당시의 화인의 경제적 지위

동남아에서 화인자본과 경제력을 논할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동남아 각국 민간부(private wealth)의 상당부분을 화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엄밀성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흔히 화인경제력의 상대적 지표로 이용되는 자료는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화인자본의 비중이다. <표 4-3>의 자료는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직전에 인도네시아 화인자본의 비중을 보여준다. 인구의 3.5%에 불과한 화인들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73%를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sup>104)</sup> 그러나 이 자료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상장기업의 경우 최종 통제자는 화인이지만 일반주주의 지분 일부는 토착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화인 기업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정기업의 지분을 51%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9% 중의 일부는 정부, 다른 화인, 토착민들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지분을 화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추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인들의 경제력을 이 비율로 이야기 한다면 과장되지 않을 수 없다.

<표 4-3> 동남아 화인의 경제력 비교(민간 부기준)

국가	인구비율(%)	민간부비율(%)	비고
싱가포르	77	81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
말레이시아	29	69	일반기업 시가총액 기준
태국	10	81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
인도네시아	3.5	73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
필리핀	2	50-60	일반기업 시가총액 기준

출처: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9, 1998.

103) 박변순, 앞의 책, p.427.

104) Benedict Anderson은 2005년 4월 26일 서강대에서 한국동남아연구소와 서강대 동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동남아의 부르주아 과두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동남아에서 중산층인 화인의 공적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민주적 개혁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화인자본의 비중을 GDP에서 차지하는 화인기업의 비중으로 볼 수도 있다. <표 4-4>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GDP에서 화인기업이 기여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홍콩, 싱가포르 등 화인이 지배종족인 경우 화인의 생산이 GDP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외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30% 정도의 화인이 GDP의 60%를 생산하고 있고, 인구비중이 훨씬 낮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인은 각국 GDP의 50%를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비중을 볼 때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화인자본의 생산이 토착민에 비해 절대적으로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표 4-4> 동남아 화인의 GDP 비중**

	인구(백만 명)	화인인구비중 (%)	부가가치생산 (억 달러)	GDP내 비중 (%)
싱가포르	2	76	620	76
말레이시아	6	32	480	60
태국	6	10	800	50
인도네시아	8	4	980	50
필리핀	1	1	300	40
베트남	1	1	40	20

출처: *The Economist* March 9-15, 1996.

화인기업의 위상은 매출액 상위 기업집단에서 화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수도 있다.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토착민 소유의 기업이 상위 250개 기업집단에서 약 37%에 불과하다. 특히 가장 큰 규모로 분류되는 IV 범위의 대기업 집단 12개 가운데 단 하나의 토착민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토착민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5> 250개 기업집단의 구조: 매출액 범위의 토착민과 비토착민 기업수

년도	범위(단위: 십억 Rupia)				총 기업수
	I (70-300)	II (301-1000)	III (1001-3000)	IV (3001-이상)	
1995 a. 토착민	57	29	7	1	94
b. 비토착민	56	62	27	11	156
c. 합계	113	91	34	12	250
1996 a. 토착민	54	32	7	1	94
b. 비토착민	49	66	28	13	156
c. 합계	103	98	35	14	250
1997 a. 토착민	56	29	6	1	92
b. 비토착민	70	50	27	11	158
c. 합계	126	79	33	12	250

출처: Anatomy of Indonesian Conglomerates, PT. Data Consult Inc., 1999, p.63.

비록 정확성과 엄밀성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동남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화인자본의 중요성은 지대하고,<sup>105)</sup> 따라서 화인들의 경영전략이나 기업행동은 동남아 경제의 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화인들은 토착민보다 현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을 수밖에 없어 이들이 경제력을 좌우하는 한 정부 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각국은 화인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력 집중보다는 경제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보았고 수하르토 대통령은 화인기업가의 재능을 이용하자는 전략을 사용했다.<sup>106)</sup>

105) GNP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2002년 기준 총 1,729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화인의 GNP 총액은 172억 달러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화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중 대비 GNP 역시 높다. Marie-Sybille de Vienne, "For a tentative modelization of the economic weight of Overseas Chinese at the beginning of the 3<sup>rd</sup> millennium," *5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Copenhagen: Institut National Des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10-14 May, 2004), p.8.

106) 박번순, 앞의 책, pp.14-17.

## 제 2 절 종교적 갈등

### 1. 종교 갈등의 역사

#### (1) 네덜란드 식민정책

네덜란드는 식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교·교육·정치를 통합하는 방법을 최고정책으로 삼았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피식민인의 충성심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암본(Ambon)에 최초로 세운 학교도 개신교학교였다.<sup>107)</sup> 개신교 교육은 20세기까지 계속되어 암본 개신교들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일찍 서구적인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개신교 학생들은 대부분 왕국의 세습지도자인 왕족 출신들이었으며, 왕족들은 총독의 후원을 입어 마을 고위직을 독점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은 이러한 개신교 마을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제공하였지만, 무슬림 마을은 결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다.<sup>108)</sup> 여러 세기에 걸친 네덜란드 식민당국의 이슬람 소외정책으로 암본 중심의 말루꾸(Maluku) 군도는 무슬림인지 개신교도인지에 따라 상이한 경제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교육·문화적 차별을 받았으며 무슬림은 해안가 저지대에, 개신교도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공동체 분리가 점차 더 확고하게 됨으로써 양측은 종교적 정체성과 공동체 집단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sup>109)</sup>

#### (2) 이슬람 부흥운동과 정치세력화

네덜란드의 30여 년 통치기간 동안 종교의 차이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신분의 차이와 동일시되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피지배층으로서의 무슬림 동질성

---

107) Richard. Chauvel, *Nationalist, soldiers, and separatists* (leiden: KITLV Press, 1990), p.25.

108) Tri. Ratnawati, "In Search of Harmony in Moluccas: A Political Historical Approach," *Communal Conflicts in Contemporary Indonesia* (Jakarta: Pusat Bahasa dan Budaya, 2002), p.4.

109) 박금희, "인도네시아 기독교도-무슬림 종교분쟁의 원인," 『동남아시아연구』 제 15권 1호, 한국동남아학회, 2005, p.152.

을 강조하였음은 물론이려니와 그 내적 결속력 또한 대단하였다. 19세기 중엽에는 이후 이슬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근대주의 경향이 나타났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중동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정치·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을 근대화하고 개혁하며 집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는 강도 높은 ‘이슬람 부흥운동(Islamic Resurgence)’을 시작하게 된다. 그들은 이슬람 부흥운동을 통해 식민지 시기에 개신교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경쟁적으로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차별적인 교육, 낙후된 정치, 그리고 경제적 제반 여건들을 건설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다.<sup>110)</sup>

1940년대에 들어서 인도네시아 정당들은 일차적으로 종교적 차이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2년 창당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연합당(Partai Sarekat Islam Indonesia), 1945년 11월에 창당한 가톨릭당(Partai Katolik)과 인도네시아 개신교당(Partai Kristen Indonesia)이다. 의회민주주의 초기(1950년 - 55년)의 협상에 의한 각 정당의 의석수는 <표4-6>과 같다.

<표 4-6> 인도네시아 의회민주주의 초기 의석수

정 당	의 석 수	구 성 비(%)
마슈미(Masyumi)	49	21.0
인도네시아국민당(PNI)	36	16.0
대(大)인도네시아연합(PIR)	17	7.3
인도네시아사회당(PSI)	17	7.3
인도네시아공산당(PKI)	13	5.6
민주연합(Fraksi Demokrat)	13	5.6
대(大)인도네시아당(Parindra)	9	3.9
가톨릭당(Partai Katolik)	9	3.9
노동자당(Partai Buruh)	7	3.0
인도네시아이슬람연합당(PSII)	5	2.2
인도네시아개신교당(Parkindo)	5	2.2
무르바당(Partai Murba)	4	1.7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	48	20.3
합 계	232	100.0

출처: 양승윤,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p.237.

110) Rifki Rosyad, *A Quest for True Islam: A Study of the Islamic Resurgence Movement among the Youth in Bandung, Indonesia* (Canberra: ANU E Press, 2007), p.1.

1991년에는 인도네시아 지식인 연합(ICMI, Ikatan Cedekiawan Muslimin Indonesia)이 창설되면서 이후 이슬람 종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세력화 하였고 단순한 민주주의 지향운동만이 아닌 종족·종교·부의 불평등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지식인 연합의 목표는 바로 사회 속에 이슬람화를 구체화 하는 것이며, 이들은 사회 전반에 이슬람적 색채를 적용하고 개혁하려 하였다.<sup>111)</sup> 1993년 보통 선거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이슬람적 배경을 가진 의회가 탄생하였다. 이슬람의 정치·사회 내에서의 기독교의 주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93년 이전에는 무슬림 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이후 그러한 주저는 사라졌다. 인도네시아 지식인 연합은 관료조직을 지배하는 시민조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의 구성원은 정부의 관료뿐만 아니라, 독립된 사고 경향의 무슬림들, 독립된 사회조직의 조직원 등이며 그 동기는 다양하였다.<sup>112)</sup>

이러한 이유로 사회전반에 反 기독교적 사고는 증가되었고 이를 두려워하는 세력도 증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도들의 공격적인 선교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어서 이슬람교도의 반감을 사는 일도 많았다. 두 종교 간의 긴장관계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공격의 증가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1995년도와 1998년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교회는 239곳이었다.<sup>113)</sup>

## 2. 종교 현황 및 전망

인도네시아는 종교 분포면에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4-7>에서 무슬림이 90% 가까이 되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대표종족인 자바족이 무슬림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신교와 가톨릭

111) Stefan. Eklöf, *Indonesian Politics in crisis: The Long Fall of Suharto 1996-1998* (Copenhage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1999): 박금희, 앞의 책, p.155.에서 재인용.

112) Azyumardi. Azra, "Islam and Christianity in Indonesia: the roots of conflict and hostility," *Religion and Culture in Asia Pacific* (Melbourne: Vista Publications, 2001), pp.83-91.

113) 김형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기독교도 관계의 변화: 말루쿠 사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 11권(봄), 한국동남아학회, 2001, p.30.

릭을 포함한 기독교가 약 8-9%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인들을 통해 들어온 불교와 기타종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표 4-7> 인도네시아 종교별 인구 분포(%)

종교	1980	1985	1998	2000 <sup>114)</sup>
이슬람	87.1	86.9	88	86.1
개신교	5.8	6.5	5	5.8
가톨릭	3.0	3.1	3	2.9
힌두교	2.0	1.9	2	3
불교	0.9	1.0	1	1.8
기타	1.2	0.6	1	0.4
총계	100	100	100	100

출처: 美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sup>115)</sup> 를 재구성.

1965년 수하르토 집권 이후 화인의 기독교 개종을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화인 기독교인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순수 화인인 또뚝들이 중국 전통과 문화를 급속히 상실해 가는 빠르아나간화를 경험했고, 신세대 화인들과 빠르아나간 집단에서 기독교를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비추어볼 때 최근 30여 년간 기독교화는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16)</sup> 이러한 화인들의 기독교화 추세는 기독교가 중국 전통종교들과는 달리 범종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덕분에 전통종교에 대해 가해졌던 차별과 감시가 한층 약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인들에게 이슬람교로의 개종은 기복신앙, 개인주의적인 종교적 태도를 견지해 온 화인들에게 과도한 세속적·육체적 욕구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화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화인들이 보여준 이러한 종교적 태도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종족갈등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을 안고 있다. 20세기

114) [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hinese](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hinese).

115) <http://lcweb2.loc.gov/cgi-bin/query/>.

116) 신윤환,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종교: 적응과 변용,” 김영수 편 『동남아의 종교와 사회』 (서울: 오름, 2001), p.229.

에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화인들의 기독교화 추세는<sup>117)</sup> 화인들에 대해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편견과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고, 이는 토착민과 화인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화인들의 기독교화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상호불신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토착민집단과 화인집단 간의 균열에 종교적 차원이 중첩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층=화인=기독교’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토착민사회는 이슬람근본주의적 호소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며 反 화인 정서에 쉽게 휩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의 6개 종교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종교공인정책은 화인들로 하여금 절충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전통적 종교관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화인들의 종교도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으로 변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117) Donald Earl. Willmott, *The Chinese of Semarang: A Changing Minority Community in Indone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0), p.230.

## 제 5 장 화인문제의 분석

### 제 1 절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의 양상

인도네시아에서 反 화인 폭동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1998년 5월 폭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동화정책으로 화인의 정체성이 상당부분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인들은 화인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화인사의 주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즉 종족갈등의 극단적 표출이라는 점 외에 화인집단이 토착민들에게는 ‘우리 집단’이 아닌 ‘타 집단’,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18)</sup>

인도네시아의 모든 화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경제적 동물(economic creatures)’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화인집단에 대한 토착민들 사이에 형성된 감정은 ‘돈’, ‘착취자’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지난 식민시대에서 화인이 중개상의 위치에서 외세를 대신해 토착민들을 착취한 과거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출판된 팜플릿과 기사들은 ‘착취자’로서의 화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토착민들의 反 화인 감정을 선동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소수종족인 화인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과거에 토착민들을 착취하기 위해 네덜란드인과 어떻게 협조했는가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당시 자카르타의 총독이었던 얀코엔(Jan Coen)이 네덜란드 식민주의에 잠재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화인을 칭찬한 사실들을 자주 인용하는 방법으로 토착민을 자극하였다.<sup>119)</sup>

이처럼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反 화인 감정이 물리적, 언어적 공격과 재산약탈 등의 극단적인 공격으로 표출된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의 전개과정과, 이 사례를 통해 집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8) 조흥국, “동남아 화인의 역사와 정체성,” 조흥국 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형설, 2000), p.19.

119) Mary F. Somers Heidhues, 박은경 옮김, 앞의 책, p.161.

## 1. 폭동의 발단과 전개

### (1) 국내 정세

1998년 인도네시아는 정치, 경제적 급변기였다. 1997년 태국 금융권의 혼란으로 태국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도 연쇄 충격에 빠졌다. 외환위기에 봉착한 인도네시아는 1997년 9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기만 하였다. 루피아의 가치는 수직으로 추락하였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다.<sup>120)</sup>

1998년 -15%의 경제위축을 경험한 인도네시아는 특히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공업과 서비스산업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98년 농업과 광업은 각각 2.4%, 8.3%의 하락을 기록한 반면, 건설업은 43.7%, 제조업은 19.3%, 서비스산업은 25.2%가 축소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생활수준 하락은 더욱 심각하였다. 중앙통계국은 1998년 중반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빈곤수준이하가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고, 이 숫자는 연말까지 1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빈곤층은 자바에 집중되어 과거 경기호황을 누렸던 자바의 도시 지역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과 주변 지역은 위기를 흡수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sup>121)</sup>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치 안정과 경제개발을 내세우고 권부(權府)에 올랐으나, 점차 정권 유지에 자신이 내건 슬로건이 퇴색되어 갔다. 그는 이슬람 등 정치적·사회적 세력을 철저히 탈(脫)정치화하였으며, 비민주적인 정치 형태에 반대하는 세력은 뻘짜실라(Pancasila)<sup>122)</sup>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간단히 제압하였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정부가 서민의 생존 경제를 지켜 주는 보조금 지급으로 막아

120) 윤진표·제대식,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연구: 군부와 이슬람 세력간의 동학,” 『국제정치논총』 제 40권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p.323.

121) Mohammad Sadli, “The Indonesian Crisis,” *ASEAN Economic Bulletin*, December 1998, pp.16-27.

122) 인도네시아 국가 철학이자 건국이념이다. 최고 신(神)에 대한 신앙,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 인본주의의 다섯 가지 원리를 의미한다. 양승윤,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p.55.

왔다. 권력 기반인 군부에게 국가경제를 합법적으로 간여(干與)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관료들에게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를 달아 주었던 것이다. 또한 ‘후견인-수혜자관계’를 자신과 가족들로 대폭 집중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게 하였다.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온정주의적 노동정책이 시행되었다. 노동생산성이나 과잉 공급된 노동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저임금 업종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생계보장의 구실로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였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이렇듯 외부적 요인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표면적인 성장만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아시아의 금융 위기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강타하였고, 수하르토 대통령의 30여 년간의 독재정치에 항의하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른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속화되면서 항의는 집단행동과 시위, 폭동으로 이어지는데 1998년 초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동에는 화인상점의 약탈, 방화, 총격 등이 잇따른다.<sup>123)</sup> 1998년 3월에 예정된 선거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1월과 2월에 연이어 발생한다. 1998년 5월 4일 전기를 비롯한 유류의 인상은 식량폭동이 약탈, 강간, 살인 등으로 번지게 한다. 결국 이렇게 극심한 사회혼란은 1998년 5월 21일 수하르토 정권과 신질서 체제가 몰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sup>124)</sup>

## (2) 폭동의 발단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속에서 집권층에 대한 신뢰 하락, 은행권의 공황상태, 식료품의 부족은 토착민들에게 反 화인캠페인으로 이어져 反 화인 감정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1998년 5월 12일 자카르타 소재 트리삭띠(Trisakti)대학교에서 정치, 경제개혁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4명의 대학생이 군의 발포로 사망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대규모 시위 군중이 폭도화 되었다. 이튿날 사망학생들의 추도를 위해 모인 군중

123) 이유선, “인도네시아의 민족관계연구-화교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3.

124)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 2005), pp.575-576.

들의 불만은 은행과 상점, 쇼핑가 등의 약탈로 이어졌다. 특히 화인소유의 상점과 건물, 주요 백화점에 대한 방화와 약탈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sup>125)</sup> 이러한 화인집단에 대한 공격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위기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그러나 1998년 5월 13일과 14일 최소한 168명의 화인여성에 대한 집단성폭행이 자행되었으며, 한 백화점에서 토착민들의 방화로 수백 명의 화인들이 불에 타죽은 사건이 발생되면서 잔혹성의 정도와 규모 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 (3) 폭동의 피해 상황과 유형

<표 5-1>는 당시 자카르타와 주변지역의 인명피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 1,198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이들의 연령과 성별은 특정 성(性)과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실종자를 포함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표 5-1> 1998년 5월 12일-17일 자카르타 주변지역의 인명피해 상황

날자	사망		부상상태		실종
	총격	방화	중상	경상	
5월 12일	6		16		1
5월 13일			12		
5월 14일		12	19	18	
5월 15일		472	4		27
5월 16일		146	1		1
5월 17일	4	558			1
총계	10	1,188	52	18	30

출처: 세계화인연맹 홈페이지 참조, "The Volunteer Team For Humanity Report,"<sup>126)</sup>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폭동양상은 중부도시인 솔로(Solo)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도 반복되며 이들 간 집중된 화인집단에 대한 테러에 대해 군과 경찰은 사

125) Kang, W. C., "Analysis of the Recent Anti-Chinese Riots and Conditions for a New Nation-Building in Indonesia,"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34-35.

126) <http://www.huaren.org/focus/id/072098-05.html>.

실상 무방비상태였다. 1998년 5월에 있었던 反 화인폭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된 ‘사실규명위원회(The Joint Fact-Finding Team: TGPF)’의 보고서는 당시 치안 유지가 허술했음을 지적한다. 안일한 대처를 비롯해 일부 담당자들은 폭동을 방치하고 묵인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명령체계의 혼돈과 함께 군대끼리의 충돌마저 있었다. 특히 화인사회는 보안책임자의 부재와 폭동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반면, 고위관리자들은 안보에 전혀 공백이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식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27)</sup> TGPF 보고서가 발표한 당시 폭동의 유형은 대체로 <표 5-2>와 같다.

**<표 5-2> 폭동 대상의 분류와 유형**

분류	유형, 행동
신체	성폭행, 방화, 성적인 괴롭힘, 구타, 고문
건물	은행, 가게, 백화점, 플라자, 수퍼마켓, 주유소, 주택, 경찰서
공공/ 개인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소형버스, 군용차량
상품	가게 상품들, 개인물품들
공공 기물	병원, 앰블런스, 공중전화, 신호등, 거리 간판

출처: 세계화인연맹 홈페이지 참조, “The Volunteer Team For Humanity Report,”<sup>128)</sup>

인명피해는 주로 성폭행과 방화, 폭행 등의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건물, 차량, 상품, 공공기물들은 그 피해상황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다. 군중형성에서부터 시작된 토착민의 파괴적인 행동은 화인 여성에 대한 집중적인 성폭행으로 표출되었다. 5월 폭동 기간에 나타난 성폭력은 강간, 폭행을 동반한 강간, 성적인 괴롭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 한달 후에 인권단체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한다. 폭동기간에 일어났던 성폭행의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집이나 빌딩 안에서 일어났다. 사건들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운간당하는 양

127) 이유선, 앞의 책, p.44.

128) <http://www.huaren.org/focus/id/072098-05.html>.

상이었으며 군중들 앞에서 저질러지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모든 성폭행의 피해자들이 화인여성이 아니지만 대부분 화인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화인사회의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당시 주요 시내와 인터넷을 통해 발견된 한 문서는 反 화인 감정의 실상을 보여준다. 마치 공문서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폭동을 선동하는 문구로 가득차 있다. “다양한 화인들에 의해 강탈당한 선조들의 재산을 돌려받기(Return of Ancestral Goods Stolen by Various Chinese)”란 제목으로 화인들을 어떻게 공격할지 행동수칙들이 나와 있었다.<sup>129)</sup> 이 문서에 명기된 재산은 결국 화인이 가져간 ‘우리의’ 재산들이며 ‘우리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즉 조상들은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이며 이 재산들은 화인의 착취에 의해 강탈당했음을 내포한다. 이처럼 화인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가해지는 것을 통해 결국 화인들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받아줄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화인에 대한 반감은 폭동당시 증인들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제임스 시겔(James T. Siegel)은 폭도들이 화인소유의 상점에는 약탈을 했지만 대부분이 토착민들의 노점상에는 공격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노점상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토착민이기 때문에 폭도들이 위해를 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 2. 폭동의 파장과 문제제기

‘부정부패(Corruption)’, ‘밀실주의(Collusion)’, 와 ‘족벌주의(Nepotism)’ 등으로 규정되어 온 신질서 정부는 약 2주일의 무정부 상태를 끝으로 5월 21일 막을 내린다. 그리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하루딘 유습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가 권력을 임시 계승한다.<sup>130)</sup> 외신과 지역언론을 통해 反 화인 폭동사실이 확산되자 국제여론과 인권단체의 압력이 본격화되었다. 6월 7일 최초로 집단성폭행이 ‘인도주의 운동을 위한 지원자들의 모임(Team of volunteers for humanitarian

---

129) James T. Siegel, “Early Thoughts on The Violence of May 13 and 14, 1988 in Jakarta,” *Indonesia*, 66, (Ithaca: Cornell University, 1998), p.102.

130)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 2005), p.575.

causes)’에 의해 밝혀지고, ‘사실규명위원회(The Joint Fact-Finding Team)’의 최종보고서에서 反 화인 폭동이 계획적이었고 조직적으로 벌어졌음이 밝혀졌다. 이에 화인집단의 집단 내 종족의식과 연대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자신들을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맡길 수 없다는 자각이 생김에 따라 그들이 후에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동일한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화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가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안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sup>131)</sup>

한편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으로 동티모르(Timor Timur)와 아체(Aceh) 지역의 분리주의운동이 가속화되자 국가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게 된다. 따라서 소수종족집단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과 기존 동화정책의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소수종족문제는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게 된다.<sup>132)</sup> 국제사회는 ‘IMF카드’를 십분 활용하여 외환위기에 처해 있는 하비비 정부에 다각도로 “동티모르 독립을 허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하비비 정부는 1999년 5월 5일 동티모르 주민투표에 의해 독립허용이라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방식에 전격 동의했고, 투표 결과 78.5%가 분리·독립에 찬성하게 된다. 1999년부터 3여 년간 국제연합의 지도 아래 국가건설 준비기간을 거친 뒤 마침내 2002년 5월에 동티모르는 21세기 첫 주권독립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과 함께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사례에서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암암리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체제 붕괴의 위험에 직면한 수하르토는 사실상 폭력을 부추기는 反 화인 언동을 일삼았고, 내분에 시달린 군부조차도 反 화인 폭동을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정치엘리트나 군부의 비호로 화인문제가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언제든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건이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가 계산된 행동을 바탕으로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화인사회에 커다란 충

---

131) James T. Siegel, 앞의 책, pp.80-89.

132) 이유선, 앞의 책, p.48.

격을 주었다.<sup>133)</sup>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화인들은 더 이상 권위주의 체제도 정치지도자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다.<sup>134)</sup>

둘째, 정치·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군중행동이 화인 테러로 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제난으로 비롯된 대중들의 불만이 화인에 대해 돌려진 사실은 화인의 경제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순히 ‘부자’와 ‘빈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이라면 부유한 토착민들에 대한 피해도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경제적 독점자’로서의 화인의 이미지는 5월 폭동 전후에 지배집단과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어 끊임없이 토착민들의 감정을 자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동화정책은 화인의 정체성을 토착민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인에 대한 토착민의 극단적인 반감의 표현들은 그들이 화인들과 공통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화인 동화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 화인에 대한 테러는 경제, 정치적 악조건에 처해질 때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착민의 反 화인 정서는 일시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깊으며, 자발적이고 빈번하게 표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만다린어 사용과 중국문화를 허용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화인 동화정책을 펼쳤으나, 이것만으로 토착민들의 反 화인 정서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화인과 토착민의 구별 없이 ‘反 폭동’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

133) Human Rights Watch Report, “The Damaging Debated on Rapes of Ethnic Chinese,” 1998, (<http://www.hrw.org/hrw/reports98/Indonesia>).

134) 신윤환, “인도네시아의 화인: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배제 사이에서,” 박사명 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p.469.

## 제 2 절 對 화인 정책의 변화 및 과제

### 1. 對 화인 정책의 변화

#### (1) 1998년 反 화인 폭동 以前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인에 대한 법적 제한은 그들의 국적법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혈통주의(血統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화인의 이중국적의 문제가 야기되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1955년 인도네시아와 ‘중·인도네시아 이중국적문제조약(中印尼雙重國籍問題條約)’을 체결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쪽 국적만을 인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sup>135)</sup>

1960년 2월부터 1962년 2월까지 2년 간 중국국적과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은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선언을 법정에서 해야 했다. 그러나 국적법은 화인이 인도네시아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출생하였을지라도 귀화과정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며 뇌물과 현지 관리들의 착취를 거쳐야 했다.<sup>136)</sup> 이러한 국적법의 난해함은 취업허가, 경제활동 등의 생활전반에서 차별대우를 겪어야 했다. 또한 시민권을 갖는다고 해도 화인들의 사회참여는 제한적이었다.<sup>137)</sup>

이후 1965년에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군 내부의 쿠데타가 있었고 이 쿠데타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도네시아는 1967년에 중국과의 외교관계까지 단절하여 수하르토 정권에서의 對 화인억제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화인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시킬

135) Robert S. Elegant, *The Dragon's Seed: Peking and the Overseas Chines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9), pp.38-39.

136) 당시 화인들의 대다수가 이중국적법 속에서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택했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말하자면 현지출생이 아니거나 출생지역이 불확실한 화인들은 중국 국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으로 어떻게 귀화시킬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Mary F. Somers Heidhues, 박은경 옮김, 『동남아시아의 화교』 (서울: 형설, 1993), p.148.

137) Mary F. Somers Heidhues, 박은경 옮김, 위의 책, p.72.

수 있는 교육, 중국 문화의 표출이나 소개 등이 일체 금지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는 중국 이름을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개명까지 해야 했으며, 학교에서의 중국어 교육은 물론 중국어 신문발행이나 출판 등은 모두 금지되었다.<sup>138)</sup> 이런 점에서 화인의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은 토착민과의 차별을 받으면서 동화될 수밖에 없는 화인의 생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反 화인 폭동 以後의 화인 유화정책

反 화인폭동 이후 수많은 화인들이 인접국가로 피신하였다. 1998년 5월 16일로 30만 명을 넘어선 화인들의 출국과 함께 막대한 자본이 집단적으로 국외로 유출되었다. 53개 화인계의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약 160조를 외국계 은행에 예치했었는데, 탈출이 이어지면서 약 110조가 빠져나갔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치혼란에서 비롯된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인도네시아의 각종 원조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외국자본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태롭게 하였다.<sup>139)</sup>

사실 인도네시아 화인 기업들은 수하르또 정권 말기의 정치 불안을 감지, 폭동 발생 수년 전부터 해외투자라는 명목하에 재산을 계속 도피시켰었다. 쌀과 설탕 수입독점권으로 사립 그룹을 인도네시아 최대 재벌로 키운 리엠 시오에 리옹은 홍콩에 퍼스트 퍼시픽(First Pacific)을 상장해 아시아 투자를 늘렸고, 두 번째 재벌인 시나르 마스 그룹의 예카 텡파 위자자도 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호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던 터였기에, 5월 反 화인 폭동 발생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sup>140)</sup>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의 여파로 1998년 5월 21일 수하르또의 32년 간의 권위주의 통치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1년 5개월의 혼란기와 이행기를 거

---

138) Kalinga Seneviraine, "New Year Bonus for Indonesia's Chinese," *Asia Times* March 2, 2007. (검색일: 2009. 3. 7)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IC03Ae01.html](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IC03Ae01.html).

139) Suryadinata, "Chinese Politics in Post-Suharto's Indonesia," *Asian Survey*, 41(3), 2001, p.506.

140) 박번순, 앞의 책, pp.40-41.

친 뒤, 와히드를 대통령으로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Megawati Sukarnoputri)<sup>141)</sup>를 부통령으로 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와히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 재건을 위해서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화인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sup>142)</sup> 이를 위해 와히드 정부는 화인을 포용하기 위해 다양한 화인유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으로 화인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화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였다.

1998년 5월 이래, 몇몇 정당이 화인들을 기반으로 출범했고 화인 지도자들도 토착민 정당에 가담하여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정당활동을 벌였다. 특히 총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메가와띠의 민주투쟁당(Partai Demokrasi Indonesia-Perjuangan)에는 화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정당은 1999년 6월 총선에서 화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정당에서 메가와띠 부통령에게 중요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크윅끼안기(Kwik Kian Gie)는 11월 발표된 새 정부의 내각에서 경제조정장관으로 임명되어 경제분야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위의 정책결정자의 지위에 올랐다. 또한 몇몇 화인들이 여러 정당에서 후보로 올라 국회의원과 국민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32년간 탈정치화 되었던 화인들은 다시 정치의 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sup>143)</sup>

화인 유화정책은 중국어와 중국 명절, 유교 등의 중국 고유의 문화를 국가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구체적인 화인정책의 변화는 하비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비비는 1998년 화인을 구별하는 용어인 뿌리부미-논뿌리부미(Pribumi-nonpribumi)라는 단어를 모든 법규, 정책, 지침, 행정지도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총선 한달 전에는 중국어 사용금지 조례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이슬람지향적이고 反 화인적이었던 하비비의 이전 입장과 행적을 익히

141) 인도네시아의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임기기간은 2001년 7월 23일~2004년 10월 20일이다.

142) Tokohindonesia: 인도네시아 인명사전 (검색일: 2009. 3. 7) <http://tokohindonesia.com/ensiklopedi/m/megawati/biografi/01.shtml>.

143) 신윤환, “인도네시아의 화인: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배제 사이에서,” 박사명 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p.470.

알고 있는 화인들은 하비비 정권에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는 않았다.<sup>144)</sup> 그래도 하비비 정부 초기부터 중국어 신문과 잡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중국어 학습을 하는 학원들이 생겨나 많은 수강생들을 모았고, 앞서 언급한 화인문제에 대한 사회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1999년 10월에 출범한 와히드 정부는 화인정책에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겨 나갔다. 와히드는 금융위기의 충격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화인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화인 기업가들에게 화인 자본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당선 직후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1998년 反 화인폭동으로 거의 모든 화인기업가들이 대량의 자본을 해외로 도피시켰는데, 특히 폭동 직후 1,2년 간 해외로 도피시킨 화인 자본 대부분이 싱가포르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sup>145)</sup>

와히드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히 ‘화인 노선’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화인들의 방대한 자금력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1999년 12월 18일 와히드는 화인사업가 림면곤(林棉坤)을 ‘전국 상업 발전 회의’ 회장으로 재임명하였다. 이 회의는 대통령 직속의 고문 단체이다. 이는 와히드 정부에서 인도네시아 화인의 경제 지위가 향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sup>146)</sup>

또한 와히드 정부는 대규모 화인자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0년 간 금지된 만다린어 사용을 허용하고 ‘임렉(Imlek)’<sup>147)</sup>이라 불리는 중국 명절인 ‘춘절’을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를 2000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다.<sup>148)</sup> 2000년 춘절에는 전국 주요 도시의 차이나타운에서 각종 전통행사들이 대대적으로 열

---

144) Jemma Purdey, *Anti-Chinese Violence in Indonesia, 1996-1999*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2006), p.179.

145) 싱가포르 『商業時報』 November 2, 1999: 한국중화총상회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검색일: 2009. 3. 7) [http://www.kccci.or.kr/work/global\\_130.html](http://www.kccci.or.kr/work/global_130.html).

146) 한국중화총상회 (검색일: 2009. 3. 7) <http://www.kccci.or.kr/work/globalist30.htm>.

147) 음력 1월 1일 구정을 말하며, 2000년 2월 5일 1967년 이후 금지되었던 ‘춘절’을 즐길 수 있었다.

148) “Gus Dur: Cina Islam Tak Haram Rayakan Imlek,” *Antara* January 30, 2008 (검색일: 2009. 3. 14) <http://www.antara.co.id/arc/2008/1/30/gus-dur-cina-islam-tak-haram-rayakan-imlek/>

렸다. 32년 간의 수하르토 체제하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사자춤과 용춤도 다시 등장했는데, 전국 모든 대도시에서 대대적으로 공연되어 토착민들을 포함한 많은 관중들을 동원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수라바야(Surabaya)에서 춘절을 경축하는 유교(Agama Konghucu) 모임에 참석하여 종교에 대한 국가공인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과거 정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던 유교나 도교도 다른 공인종교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sup>149)</sup> 화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인 서칼리만탄(Kalimantan Barat) 주지사는 국영 텔레비전 지방방송을 통해 춘절 신년메시지를 화인들에게 방송하기도 했다.

공산주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1967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했던 공·사립 학교의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 출판물 제작 및 수입, 중국어 신문 발행 등에 대한 빗장도 연이어 풀렸다. 중국어 신문은 화인 사회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화인에 대한 정치인식을 고취하는 것을 돕고 있다. 중국어 신문은 화인단체가 개최하는 정치세미나에 독자들을 초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화인 후보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어 신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자카르타를 기반으로 한 ‘하리안 인도네시아(Harian Indonesia)’로 일일 14,000 부가 발행된다. 이 신문은 수하르토 시절에 유일하게 발행되던 중국어 신문이었다. 수하르토는 1966년에 모든 중국어 신문을 통폐합시키고 인도네시아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신문을 하나만 남겼다. 그리고 정부는 이 신문을 나이든 화인들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수단으로 만듦으로써 화인 동화정책을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와히드 정부가 ‘중국어 사용금지법’을 폐지한 뒤 자카르타에서 중국어 신문이 세 가지나 등장했다.<sup>150)</sup> 일간지 ‘비즈니스 인도네시아(Business Indonesia)’가 운영하는 ‘디 인도네시아 상 바오(The Indonesia Shang Bao)’, 대만인이 지원하는 ‘더 유니버시티 데일리(The University Daily)’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일간지와 제휴한 ‘디 인터네셔널 데일리(The International Daily)’ 등이다.

149) 매릴랜드 대학 유교과학원(Center for Confucian Science in Univ. of Maryland) (검색일: 2009. 3. 14) [http://terpconnect.umd.edu/~tkang/welcome\\_files/Indonesia.htm](http://terpconnect.umd.edu/~tkang/welcome_files/Indonesia.htm).

150) Agnes Winarti, “Chinese papers attracting younger readers,” *The Jakarta Post* 15 Mei 2008 (검색일: 2009.3.14)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8/05/15/chinese-papers-attracting-younger-readers.html>.

2001년 7월 집권한 메가와띠 대통령은 화인사회의 오랜 염원을 수용하고 국제 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명절인 ‘춘절’을 2003년부터 국가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화인의 문화적인 권리를 더욱 확대 보장함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sup>151)</sup>

와히드 정부에서 1978년 이래로 금지되어 왔던 한자의 ‘공공 디스플레이 (Public Display)’를 허용함에 따라, 한자는 인도네시아 공공 장소에서 특정 개인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한자와 중국어의 장려는 메가와띠 정부에까지 이어졌다. 메가와띠 정부 하에서 중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국에 중국어 교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 대학에 개설될 중국학 학과와 중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을 선언하였다.<sup>152)</sup> 이것을 계기로 많은 중국어 교육 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설립되었고, 중국어가 교과과목으로서 포함되었으며, 많은 중국학 연구 센터가 대학에 신설되었다. 급기야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자를 선거 캠페인 포스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2004년 4월 총선에선 정부수립 이후 가장 많은 300여 명의 화인이 중앙·지방 의원 후보로 출마해 70여 명이 당선되었다.

2004년 10월 제 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유도요노는 부패척결을 주장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외를 돌며 인도네시아에 투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2005년 1월에는 자카르타에서 인프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세계 각국의 투자가를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220억 달러 상당의 91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되는 투자법 제정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IMF 이후 빠져나갔던 화인자본들도 속속 들어와 부동산

---

151) “Indonesia president stresses equality at national lunar new year celebration,” *Union of Catholic Asian News* February 3, 2009 (검색일: 2009. 3. 21) <http://www.ucanews.com/2009/02/03/president-stresses-equality-at-national-lunar-new-year-celebration>.

152) Chang-yau Hoon, “How to be Chinese,” *Inside Indonesia*, 78, Apr-Jun 2004 (검색일: 2009. 3. 21) <http://www.insideindonesia.org/content/view/237/29/>.

개발이 증가세에 있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였다.<sup>153)</sup>

또한 유도요노 정부는 한때 경쟁 관계였던 중국과 경제 및 전략적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 동부 자바지방에 정유소 공동 건설 사업등 다양한 쌍무 협정을 체결하였다.<sup>154)</sup>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도요노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화인 유화정책을 실천하며 국내 화인 자본의 유출을 막고 있다.<sup>155)</sup> 유도요노가 추진한 구체적인 화인 유화정책은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변화의 조치에 명실상부한 실질적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신국적법의 발효이다. 2006년 12월에 발효된 신국적법은 법과 제도상에서 對 화인 차별정책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되었다. 신국적법은 종전의 것과 달리 토박이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개념을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또한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시한을 설정하는 등 국적취득에 불명확한 조항을 개정했다. 이로써 국적 불명의 많은 중국인들이 국적을 갖게 되고 화인은 중국식 이름으로 자유롭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박이 인도네시아인과 같은 수준의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sup>156)</sup> 다른 법률들은 은행대출이나 정부계약 등에서 토박이를 의미하는 ‘쁘리부미’에 대한 특혜를 없앴다. 화인들의 국립대학 입학 제한과 여권발급 차별등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수하르토 정부 하에서 어떤 식으로든 화인을 차별하려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었다.

---

153) “Indonesia Infrastructure Summit,” 주 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January 17-18, 2005 (검색일: 2009. 3. 21) <http://www.usembassyjakarta.org/econ/infrastructure-summit.html>.

154) “President Yudhoyono, Chinese deputy PM discuss financial crisis,” *Antara* December 23, 2008 (검색일: 2009. 3. 21) <http://www.antara.co.id/en/arc/2008/12/23/president-yudhoyono-chinese-deputy-pm-discuss-financial-crisis/>.

155) Tokohindonesia: 인도네시아 인명사전 (검색일: 2009. 3. 7) <http://www.tokohindonesia.com/ensiklopedi/s/susilo-b-yudhoyono/berita/2005/index.shtml>.

156) “Partisipasi Politik, Sosial dan Ekonomi Etnis Tionghoa Indonesia di Era Reformasi,” *indonesia media* July 31, 2008 (검색일: 2009. 3. 8) <http://www.indonesiamedia.com/2008/7/mid/opini/PARTI.html>.

유도요노 대통령은 메가와띠 정부에서의 화인 유화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인도네시아-중국 문화관계 50주년’ 기념행사를 하원의장, 자카르따 시장, 주 인도네시아 중국대사 등 정·관·재계 유력인사와 일반인 등 약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개최하였고, ‘메트로 티브이(Metro TV)’ 등을 통해 전체내용을 전국에 생방송 하였다. 그는 축하연설에서 더 이상 화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현 정부의 화인에 대한 호의를 직접 보여주었다.<sup>157)</sup>

와히드 대통령 때부터 주장되어 왔던 유교의 공인종교화도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루어 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로서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종교에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교, 힌두교, 불교 등 5개 종교만 인정하다가 2005년에 비로소 유교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화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절실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었다.<sup>158)</sup>

## 2. 對 화인 정책에 따른 화인의 행위 선택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이후에도 화인에 대한 토착민들의 폭동은 그치지 않았다. 중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인도네시아 화인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화인 유화정책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토착민은 화인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정책의 수혜자로부터 멀어진다는 위기 속에서 토착민들은 폭동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토착민들의 폭동 속에서 화인들이 어떠한 행위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허쉬만의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sup>159)</sup>의 틀로 사례 분석을 하겠다.

157) Thung Ju Lan, “Positioning Etnis Tionghoa-Indonesia dalam Hubungannya dengan Tiongkok,”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소재, 프트라 기독교 대학(universitas Kristen Petra)의 2008년 5월 16일 세미나 자료 (검색일: 2009년 3월 14일) [http://groups.yahoo.com/group/budaya\\_tionghua/message/33575?l=1](http://groups.yahoo.com/group/budaya_tionghua/message/33575?l=1).

158) Susilo Bambang Yudhoyono의 ‘춘질’ 경축사, “Penganut kongfucu tak perlu ragu beribadah,” *Indonesia media* February 14, 2005 (검색일: 2009년 3월 21일) <http://www.indonesia.com/sripo/2005/02/14/1402h02.pdf>.

159)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pp.7-8 참조.

(1) 화인의 ‘이탈 선택(exit option)’ 사례

인도네시아 정부가 反 화인 폭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화인의 신변을 보호할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또는 反 화인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화인은 ‘이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反 화인 폭동에서 보여준 화인의 ‘이탈’ 행위이다. 反 화인 폭동 당시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암암리에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화인들은 출국과 함께 막대한 자본을 국외로 유출시켰다.<sup>160)</sup> 이러한 사례는 하비비 정부에서도 발생하였다. 이슬람지향적이고 反 화인적이었던 하비비는 ‘화인 불필요론’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화인들의 인도네시아 탈출 현상이 재연되었다. 주요 도시의 화인들은 대부분 무슬림인 토착민들의 잇단 폭력과 방화를 피해 다시 인도네시아를 떠났다.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의 경우 1998년 7월 한 주 동안에만 약 3백여 명의 화인이 홍콩, 호주 등으로 도피하였다.<sup>161)</sup>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화인의 ‘이탈’ 현상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인 유화 정책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反 화인 인사로 분류되었던 하비비 대통령 조차도 화인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중국어 사용금지 조례 폐지 등의 화인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인 유화 정책은 토착민들에게 화인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기재로 작용하여 또 다른 화인 폭동을 야기시킨다. 1998년 11월에 있었던 토착민들의 화인테러는 결혼식이 진행 중인 교회에 난입하였다는 점에서 화인사회의 충격을 주었다. 하객들을 구타하고 기물을 부수며 교회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 차이나타운의 은행, 호텔, 학교도 약탈했으며 이 사태로 13명이 사망하였다.<sup>162)</sup>

---

160) 본 논문의 p.69 참조.

161)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행동 네트워크(East Timor and Indonesia Action Network)’의 홈페이지 July 14, 1998 (검색일: 2009. 3. 28) [http://www.etan.org/et/1998/july/July 14-21/20chine.htm](http://www.etan.org/et/1998/july/July%2014-21/20chine.htm).

162) “인도네시아 사태 종교-인종갈등 새 불씨,” 『조선일보』 1998년 11월 23일자 (검색일: 2009. 4. 5)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811/199811230391.html>.

(2) 화인의 ‘충성 선택(loyalty option)’과 ‘항의 선택(voice option)’ 사례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인 유화정책은 화인들의 ‘충성 선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신 국적법의 발효, 중국 명절인 ‘춘절’의 국가공휴일화, 유교의 공인종교화, 중국어 교육의 장려 정책은 과거의 획일적인 동화정책에서 벗어나 화인의 고유문화를 인정하여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안착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화인 유화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정착하려는 화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충성 선택’도 커지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보다 더욱 개선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항의 선택’을 높이는 사례도 발생한다. 2004년 총선에선 역대 최대인 300여 명의 화인이 중앙 및 지방 의원 후보로 출마해 70여 명이 당선되었다. 화인들은 자신들을 국가의 화인 유화정책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치의 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화인들 스스로가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국가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유교의 공인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증명서나 주거서류의 발급시 종교란에 유교가 기재되지 않는 등 행정상의 불편함을 유교신자들에게 주었다. 이에 유교를 신봉하는 화인들의 강력한 ‘항의’가 뒤따랐고, 종교장관은 즉각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약속하였다.<sup>163)</sup> 화인들의 강력한 ‘항의’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그러나 화인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화인 유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 고유문화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자리잡게 됨에 따라, 토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게 된다. 2005년 11월 자카르타 화인들에게 협박 문자메시지가 퍼지면서 또 다시 종족폭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협박 문자메시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책임은 화인에 있다며,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이 끝나면 모두 태워죽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164)</sup>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의 對

---

163) Chang-yau Hoon, “Ethnic Chinese experience a ‘reawakening’ of their Chinese identity,” *Inside Indonesia*, 78, Apr-Jun 2004. (검색일: 2009. 4. 5) <http://www.insideindonesia.org/content/view/237/29/>.

164) “인도네시아 화교들이 떨고 있다.” 『헤럴드 경제』 2005년 11월 4일자 (검색일: 2009. 4. 5)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5/11/04/200511040241.asp](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5/11/04/200511040241.asp).

화인 정책과 토착민의 反 화인 감정에 따라 화인은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을 결정하게 된다. 화인에 대한 토착민의 반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탈’, ‘항의’, ‘충성’은 순환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 3. 對 화인 정책의 과제

인도네시아의 화인들은 법과 제도상으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실질적 개선과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곳곳에는 차별적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법규를 집행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화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보이지 않는 불평등 관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인들이 마치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화인 측에서는 특권이 아닌 평등을 요구할 뿐이라는 인식상의 기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인 유화정책에 있어서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어 교육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젊은 화인들은 중국어를 화인 문화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조상의 언어를 배워 뿌리를 발견하려는 목적보다 취업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화인 유화정책의 파급 효과보다 실제로 화인들이 느끼는 화인 유화정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명절인 ‘춘절’의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 인도네시아 사회로부터의 시기심 유발을 피하기 위해 자제하는 방식으로 ‘춘절’ 행사를 치르는 지역들이 있다.<sup>165)</sup> 이처럼 反 화인 정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反 화인 폭동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라고 볼 때 對 화인 정책은 어떠한 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 최선의 상태로 들어선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적 인식과 관습까지 변화시키는 데에는 그동안의 차별정책이 30년 이상 오래된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65) Chang-yau Hoon, “How to be Chinese,” *Inside Indonesia*, 78, Apr-Jun 2004 (검색일: 2009. 3. 21) <http://www.insideindonesia.org/content/view/237/29/>.

## 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 원인 및 양상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정권에서 對 화인억제정책이 대폭 강화되어 학교에서의 중국어 교육은 물론 중국어 신문발행이나 출판 등이 모두 금지되는 등 중국 문화의 표출이나 소개에 제약을 받았으며, 화인이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는 중국 이름을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개명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도 화인들은 신용을 토대로 한 화인공동체의 내부적 결속과 토착 정치엘리트와의 후원관계를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소수 종족인 화인의 경제적 성장은 토착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1997년 경제위기와 더불어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反 화인 폭동 양상의 특징은 정치·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군중행동이 화인 테러로 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제난에 대한 수하르토 내각의 미흡한 위기관리 능력과, 유류 인상 및 식료품 부족으로 극에 달한 대중들의 분노가 화인의 경제독점에 대한 불만과 어우러져 폭행, 방화 및 화인 여성에 대한 조직적 집단성폭행 등의 반인륜적 행위로 표출되었다. 또한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군부가 군중폭동을 묵인하여 화인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화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998년 5월 反 화인폭동으로 화인자본의 대규모 해외유출을 경험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화인자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에, 화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중국 명절인 춘절의 공휴일 화, 신국적법 발효, 공식종교로서 유교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화인 유화정책과 더불어 2004년 총선에선 정부수립 이후 가장 많은 70여 명의 화인 중앙·지방 의원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화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화정책과 화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는 反 화인폭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토착민의 화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反 화인 폭동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인과 토착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협력관계 모색이 필요하다. 화인과 토착민의 합작투자, 화인기업의 전문경영인 채용, 범종족적 노사평화 노력 등을 통해 종족간 갈등의 벽을 적극적으로 허물어 가야 한다. 그 결과 종족에 따라 화인자본과 토착자본을 구분하던 토착민의 인식의 틀을 차츰 바꾸고, 정부의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화인자본과 토착자본을 구분하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규모에 따라 대자본과 중소자본을 구분하는 새로운 관행이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화인자본가의 입장에서 토착민과의 경제적 협력은 토착민의 불만을 희석시키고 화인자본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反 화인 폭동이 토착민의 ‘가치기대’와 ‘가치능력’ 사이의 인지된 괴리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98년 5월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주목하며, 反 화인 폭동의 근본적 원인을 토착민들이 화인에 대해 갖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왜 하필 1998년 5월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이러한 폭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은 거어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反 화인 폭동은 토착민의 ‘가치기대’와 ‘가치능력’ 사이의 인지된 괴리에서 발생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1998년 5월 폭동 직전의 인도네시아는 정치·경제적 격변기였다. 1997년 태국 금융권의 혼란으로 태국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도 연쇄 충격에 빠졌고 인도네시아 또한 외환위기에 봉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9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상장기업의 외국인지분율 제한 폭 49%를 폐지하였다. 이후 다시 외국인투자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외국인기업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기존의 지주회사를 100%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재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한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으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기만 하였다. 루피아의 가치는 수직으로 추락하였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속에서 경제적 약자인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가치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특히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빈곤수준이하가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증가하자, 화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토착민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책임이 화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을 화인들이 강탈하였다며 폭동을 통해 反 화인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거어의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집합행동을 정치적 폭력으로 표현되는 비제도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집합행동은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과 불만에 의해서 촉발되어 궁극적으로는 체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접근하고 있다.<sup>166)</sup> 상대적 박탈감이 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수준의 가치불만이라기보다는 가치분배의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적 불만이라고 볼 때, 단순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만으로는 구조적인 불만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또한 ‘가치기대’와 ‘가치능력’간의 격차 또는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성취간의 격차로 개념화되는 상대적 박탈은 사회적 비교를 겨냥하고 있는 개념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집단 또는 사회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사회적 불만의 양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평등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적 이론가들은 사회적 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전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을 단순히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로서 개념화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서의 ‘타자’와의 비교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박탈감으로 그 개념을 확장한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토착민의 경우처럼 흔히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는 ‘타자’와의 괴리에서 가장 심하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67)</sup>

두번 째 가설은 인도네시아 화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탈’, ‘항의’, ‘충성’을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對 화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화인들이 선택하는 행위를 허쉬만의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의 이론적 틀로

166)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p.59.

167) 임희섭, “상대적 박탈의 경험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가설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인문논집』 제 38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93, pp.51-71.

설명하였다. 허쉬만의 논의에서 회사와 회사의 구성원을 각각 인도네시아 정부와 화인들로 가정하여 화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反 화인 폭동사건이 일어났으나 정부가 화인의 신변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화인들은 해외로 110조 이상을 가지고 도피하였다, 이것은 ‘이탈 선택’이다. 화인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비난에 직면하자 와히드 정부는 중국 명절인 춘절을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를 2000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고,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 출판물 제작, 중국어 신문 발행 등에 대한 빚장도 연이어 풀었다. 이는 화인들의 ‘충성 선택’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2004년 총선에선 역대 최대인 300여 명의 화인이 중앙 및 지방 의원 후보로 출마해 70여 명이 당선되었다. 화인 유화정책이 실현되고 있고, 화인의 정치적 입지가 차츰 넓어짐에 따라, 향후 화인들은 ‘이탈’을 하기보다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화인 유화정책은 토착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향후 反 화인 폭동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화인의 ‘이탈’ 가능성은 다시 높아지게 된다.

한편 1998년 反 화인 폭동 이후 화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인들이 ‘이탈’을 하고, 어떤 이들이 ‘항의’를 선택하고, 또 어떤 이들이 ‘충성’을 했는지 하는 문제의 분석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탈’, ‘항의’, ‘충성’을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화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다. 특히 화인 인구가 많은 서부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에 거주하는 화인들과, 자카르타 등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화인들은 폭동의 주체인 토착민들보다 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화인’들이 ‘이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유한 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주로 싱가포르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일을 함에도 영어가 비교적 수월한 필리핀 노동자들보다 저임금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수하르토 정권부터 2000년까지 對 화인 억제정책으로 교육 및 정치제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토착문화로의 동화를 필연적으로 경험한 탓에, 중국계가

주도하는 싱가포르 사회에서조차 적응이 쉽지 않다. 반면에 ‘부유하지 못한 화인’이 향상된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항의’를 선택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의 ‘항의’ 효과는 ‘부유한 화인들’의 ‘항의’보다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8년 5월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인 유화정책의 배경은 막대한 화인자본이 집단적으로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 있었다. 폭동 당시 53개 화인계의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약 160조를 외국계 은행에 예치했었는데, 탈출이 이어지면서 약 110조가 빠져나갔다고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폭동 직후의 하비비 정부부터 와히드, 메가와띠, 현재 유도요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경제 재건을 위해서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화인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화인유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으로 화인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인들의 ‘항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유한 화인들’의 ‘이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항의’에 더 주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부유하지 못한 화인’은 ‘부유한 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탈’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고, ‘항의’를 할 수는 있으나 정부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안을 찾기 힘든 ‘부유하지 못한 화인’이 정부에 대해 ‘충성’의 행위를 선택할 여지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화인은 ‘부유한 화인’이다.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을 다루는 본 연구가 화인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토착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폭동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유하지 못한 화인’이 ‘충성’의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과 달리, ‘부유한 화인’은 정부의 화인에 대한 정책과 이에 대한 토착민들의 반응에 따라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의 행위를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부유한 화인’의 ‘이탈’을 막고자 정부는 화인 유화 정책을 강화하게 되고 이로써 정부에 대한 화인의 ‘충성’은 증대된다. 동시에 ‘부유한 화인’은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항의’를 높일 수 있다. 화인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주류 세력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토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폭되어 또 다른 反 화인 폭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토착민의 화인에 대한 반감은 화인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어 화인이 ‘이탈’ 행위를 선택하는 기재로 작용하게 되고, 정부는 다시 ‘부유한 화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화인 유화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의 행위는 순환되는 것이다. 경제학적 개념으로서의 허쉬만의 개념들은 열악한 조건에 처한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탈, 항의, 충성’의 개념은 인도네시아 화인의 의사결정과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삶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이 실제 경제학적인 순환의 논리에 정확히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다.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가난과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의’를 통해 결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탈, 항의, 충성’의 작동원리를 모든 종족갈등의 사례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언론매체에서의 인도네시아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은 기독교도인 화인과 무슬림인 토착민간의 종교적 갈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많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화인사에 주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이후의 화인 유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화인들이 정부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화인 네트워크와 유교자본주의, 토착 정치엘리트와 화인 기업인간의 ‘후견인-수혜자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화인과 토착민간의 갈등을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화인의 경제적 성공으로 인한 토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측면까지도 고려하였다. 또한 1998년 5월 反 화인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화인 유화정책이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고화 되는 과정과, 화인들이 對 화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를 이론적 틀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對 화인정책에 관한 연구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6년 12월에 ‘신국적법’의 발효가 법과 제도상에서 對 화인 차별정책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되었으며, 와히드 대통령 때부터 주장되어 왔던 유교의 공인종교화가 비로소 2005년 유도요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룬 것은 본 연구의 성과이다.

그러나 현지 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에 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화인에 관련된 보고서나 자료가 많지 않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접근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많은 1차 자료에 의거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對 화인정책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두 종족간의 갈등 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 가마다 시게오, 정순일 옮김. 1985. 『中國佛敎史』 서울: 경서원.
- 고영경. 1999. “인도네시아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금희연. 1997. 『중국인의 상관습과 협상요령』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김길규. 2003. “중국 상관습과 무역 및 투자분쟁 사례연구.”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진·유인선. 1990. “ASEAN의 사회정치와 화교문제.” 『아세아연구』 제 33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수련. 2000.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화인의 경제적 지위변화 연구: 화인 네트워크의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김영래(외). 1998. 『동남아 화교자본의 경영특성과 이들과의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방안의 모색』 서울: 국제무역 경영연구원.
- 김영애. 1993. “태국내 소수종족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 2권 4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김익수. 1993. “日本企業의 90年代 對中直接投資 戰略.”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 動向과 戰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완중. 1997.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위기의 배경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형준. 2001. “인도네시아의 무슬림-기독교도 관계의 변화: 말루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 11권(봄). 한국동남아학회.
- 김화섭. 1997. 『동북아시아 중화경제권과 한국경제』 서울: 산업연구원.
- 류석춘. 1997.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 현대』 여름호(창간호). 서울: 전통과 현대.

- , 1998. “동양,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 봄호. 서울: 사회과학원.
- , 2002.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부문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제 10권 2호. 서울: 자유기업원.
- 메리 F.소머스 하이두스, 박은경 옮김, 1993. 『동남아시아의 화교』 서울: 형설.
- 박금희, 2005. “인도네시아 기독교도-무슬림 종교분쟁의 원인.” 『동남아시아연구』 제 15권 1호. 한국동남아학회.
- 박변순, 2001.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사명(외), 2000.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 박현욱·박정동, 2003. 『한국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손주영, 1999. “이슬람권 소수민족 분쟁의 역사·문화적 배경.” 『중동연구』 제 18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신윤환, 1989. “현대적 형태의 원시축적: 인도네시아 재벌형성과정에 관한 일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27권 2호. 한국정치학회.
- , 1993. “인도네시아의 화교와 화교자본: 수하르토 집권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 2권 4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 2000. “인도네시아의 화인: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배제 사이에서.” 박사명 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 , 2001.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종교: 적응과 변용.” 김영수 편 『동남아의 종교와 사회』 서울: 오름.
- 양승윤, 1993. “인도네시아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이슬람과 군부의 세력경쟁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 2권 4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 1996. “인도네시아 華人の 文化的 背景에 關한 考察.” 『논문집』 제 29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 , 1998.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승윤·박재봉·김공섭, 1997.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유태건. 1998. “유교와 경제발전-경제성장에 대한 유교의 적응성을 중심으로.” 『부산정치학회보』 제 8집. 부산정치학회.
- 윤인진. 1997. “다인종 사회에서의 소수민족관계: 미국에서의 한흑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권(가을호). 한국사회학회.
- . 2002. “인도네시아의 민족관계 화교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 45권 제 2호 통권 108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윤진표·제대식. 2000.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연구: 군부와 이슬람 세력간의 동학.” 『국제정치논총』 제 40권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근수. 2001. “인도네시아의 국내분쟁.” 『국방저널』 제 332권. 국방홍보원.
- 이문봉. 1994. 『동남아 화교기업』 서울: 길벗.
- 이유선. 2002. “인도네시아의 민족관계연구-화교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원삼. 1996. “아랍 소수민족 종파분포도.”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17권. 한국중동학회.
- 이재유. 1997. “대중화경제권과 동남아 화교자본.” 『중소연구』 제 73권.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 임마누엘 월리스타인. 강문구 옮김. 1996. 『자유주의 이후』 서울: 당대.
- 임어당. 심혜진 옮김. 1995. 『중국, 중국인』 서울: 장락.
- 임영호. 2003. “기업문화와 상관습: 인도네시아 화인의 상관습.” 『국제지역정보』 제 7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임희섭. 1993. “상대적 박탈의 경험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가설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인문논집』 제 38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 .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장공자. 1986.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인의 위치.” 『현대사회』 제 23권 가을호. 현대사회연구소.
- 주성환. 1999.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유교문화.” 동북아경제연구 제 11권.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 최협·이광규. 1998. 『다민족국가의 민족문제와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 클리포드 기어츠. 문옥표 옮김. 1998.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 홍석준. 1993.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지역연구』 제 2권 4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 1997. “동남아시아의 종족성 연구를 위한 시론.” 김민정·김영수 편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서울: 오름.
- 토마스 헤베르. 1997. “Ethnic Revival, Ethnic Identity and Ethn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in China.” 『비교문화연구』 제 3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홍 차오타이(외). 구범모 옮김. 1996. 『공자의 경제학』 서울: 한세.
- 황태연. 1997. 『지역패권의 나라』 서울: 무당미디어.

## 2. 외국문헌

- Anderson, Benedict R. O'G. 1983. "Old State, New Society: Indonesia's New Order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Studies*, 42(3).
- Ang, I. 1993. "To be or not to Be Chinese: Diaspora, Culture and Postmodern Ethnicity."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1(1).
- Azr, Azyumardi. 2001. "Islam and Christianity in Indonesia: the roots of conflict and hostility." *Religion and Culture in Asia Pacific*. Melbourne: Vista Publications.
- Barton, Clinton. 1983. "Trust and Credit: Some Observations Regarding Business Strategies of Overseas Chinese Traders in South Vietnam." Linda Y. C. Lim and Petergosling(eds.),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1. Singapore: Maruzen Asia.
- Bonacich, E.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 Chang-yau Hoon. 2004. "How to be Chinese." *Inside Indonesia*, 78, Apr-Jun.
- . 2004. "Ethnic Chinese experience a 'reawakening' of their Chinese identity." *Inside Indonesia*, 78, Apr-Jun.
- Chauvel, Richard. 1990. *Nationalist, soldiers, and separatists*. leiden: KITLV Press.
- Drake, C. 1989. *National integration in Indonesia: patterns and polic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ast Asia Analytical Unit. 1995. *Overseas Chinese Business Networks in Asia* AGPS Press.
- EklÖf. Stefan. 1999. *Indonesian Politics in crisis: The Long Fall of Suharto 1996-1998*. Copenhage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 Elegant, Robert S. 1959. *The Dragon's Seed: Peking and the Overseas Chinese*. New York: St. Martin's Press.
- Frankie Fook-Lun, Leung. 1995. "Overseas Chinese Management: Myths and Realities." *East Asean Executive Reports*, 17(2).
- Freedman, Amy L. 2000.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thnic Minorities: Chinese Overseas in Minorities, Indonesia,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Freedman, Maurice. 1959. "The Handling of Money: A Note on the Background to the Economic Sophistication of Overseas Chinese." in M. Freedman.(ed), *The Study of Chinese Socie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univall, J. S. 1944.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ertz, C. 1963. "The Integrative Revolution." In Geertz, C.(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New York: Free Press.
- Giddens, Anthony. 1990.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Gordon, Milton.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ief, Stuart William. 1988. *Indonesian of Chinese Origin*. New York: PWPA.
- Gurr, T. R. 1970. *Why Men Rebel?*.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l, E. T. 1960. "The silent Language in Overseas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 Hamilton, Gary. 1991. *Business Net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lbert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J. Milton Yinger. 1986. "Intersecting strands in the theorisation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Rex, J. and Mason, D.(ed).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ntjaraningrat. 1990. *Kebudayaan dan Manusia di Indonesia*. Jakarta: Penerbit Djambatan.
- Lande, C. 1999. "Ethnic Conflict, Ethnic Accommodation, and Nation-Building in Southeast Asia Studies."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4(4).
- Liddle, R. William. 1987. "The Politics of Shared Growth." *Comparative Politics*, 19.
- MacIntyre, Andrew. 1992. *The Dynamics of Economic Policy Reform in Southeast Asia and Southwest Pacific*. London: Oxford University.
- . 1994. *Business and Government in Industrializing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ckie, J. A. C. 1988. "Changing economic roles and ethnic identities of Southeast Asian Chinese: A comparison of Indonesia and Thailand." in Cushman and Wang(ed). *Changing Ethnic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 1992. "Changing Patterns of Chinese Big Business in Southeast Asia." in Ruth McVey(ed). *Southeast Asian Capitalists*.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McVey. Ruth(ed). 1980. *Southeast Asian Capitalists*. Ithaca: Cornell University.
- . 1992. "The Materialization of the Southeast Asian Entrepreneur." *Southeast Asian Capitalists*.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Mohammad Sadli. 1998. "The Indonesian Crisis." *ASEAN Economic Bulletin*, December 1998.
- Nagata, J. 1975. *Pluralism in Malaysia: Myth and Reality*. Leaden: E.j. Brill.

- Paris, Jonathan. 1998. "Minority rules: How Indonesia's Chinese can survive." *The New Republic*, 219(2).
- Purcell, Victor. 1965.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atnawati, Tri. 2002. "In Search of Harmony in Moluccas: A Political Historical Approach." *Communal Conflicts in Contemporary Indonesia*. Jakarta: Pusat Bahasa dan Budaya.
- Redding, S. Gordon. 1990.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 1993. "The Origins of Revenue Farming in Southeast Asia." John Butcher and Howard Dick. eds. *The Rise and Fall of Revenue Farming: Business Elites and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in Southeast Asia*. New York: St. Marin's.
- Romanucci-Ross, L. and DeVos, G.(Eds). 1995. *Ethnic identity: Creation, conflict and accommodation*. CA: AltaMira Press.
- Rosyad, Rifki. 2007. *A Quest for True Islam: A Study of the Islamic Resurgence Movement among the Youth in Bandung, Indonesia*. Canberra: ANU E Press.
- Santoso, A. 1998. "Jakarta's May Revolution." *Inside Indonesia*, 56.
- Siegel, J. T. 1998. "Early Thoughts on The Violence of May 13 and 14, 1988 in Jakarta." *Indonesia*, 66, Ithaca: Cornell University.
- Soesastro, M. Hadi. 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Deregulation Indonesia." *Asian Survey*, 29(9).
- Suharto. 1989. *Otobiografi: Pikiran, Ucapan, dan Tindakan Saya*. Jakarta: Citra Lamtoro Gung Persada.
- Sumardi, S. 1998. "Rape is Rape." *Inside Indonesia*, 56.

- Suryadinata, L. 1987.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1(1), Summer-Fall.
- . 1997. *The Culture of the Chinese Minority in Indonesia*.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 . 2001. "Chinese Politics in Post-Suharto's Indonesia." *Asian Survey*, 41(3).
- Tan, E. K. B. 2001. "From sojourners to citizens: managing the ethnic Chinese minority in Indonesia and Malaysia." *Ethnic and Racial Studies*, 24(6).
- Tan, M. G. 1987. "The Role of Ethnic Chinese Minority in Development: The Indonesian Case." *Southeast Asia Studies*, 25(3).
- . 1995. "The Ethnic Chinese in Indonesia: Issues and Implications." *Southeast Asian Chinese: Socio-Cultural Dimension*. edited by L. Suryadinata.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 1997. "The Ethnic Chinese in Indonesia: Issues of Identity." *Ethnic Chinese as Southeast Asians*. edited by L. Suryadinat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hung Ju Lan. 2008. "Positioning Etnis Tionghoa-Indonesia dalam Hubungannya dengan Tiongkok." *Paper untuk Seminar Sehari Universitas Petra*. Surabaya: Universitas Kristen Petra.
- Willmott, Donald Earl. 1960. *The Chinese of Semarang: A Changing Minority Community in Indone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Wirth, Louis. 1945.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In Linton, Ralph(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Yoshihara, Kunio. 1988.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Yuri sato. 1993. "Ownership and Management of Business Group in Indonesia:  
Focusing on Partnership - Typed Business Groups." Koike and  
Hoshino(ed). *Business Group in Developing Countries*. IDE.
- Yuval-davis, N. 2001. "Contemporary Agenda for the study of Ethnicity,  
Symposium on Ethnicity." *Ethnicity*, 1.

### 3. 인터넷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 href="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a>
美 의회 도서관	<a href="http://www.loc.gov/index.html">http://www.loc.gov/index.html</a>
매릴랜드 대학 유교과학원	<a href="http://terpconnect.umd.edu/~tkang/">http://terpconnect.umd.edu/~tkang/</a>
세계화인연맹	<a href="http://www.huaren.org/">http://www.huaren.org/</a>
유네스코	<a href="http://www.unesco.org/">http://www.unesco.org/</a>
인도네시아 관련저널	<a href="http://insideindonesia.org/">http://insideindonesia.org/</a>
인도네시아 통계청	<a href="http://www.bps.go.id/">http://www.bps.go.id/</a>
주 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	<a href="http://www.usembassyjakarta.org/">http://www.usembassyjakarta.org/</a>
East Timor and Indonesia Action Network	<a href="http://www.etan.org/">http://www.etan.org/</a>
Human Rights Watch	<a href="http://www.hrw.org/">http://www.hrw.org/</a>
Tokohindonesia	<a href="http://www.tokohindonesia.com/">http://www.tokohindonesia.com/</a>
Wikipedia	<a href="http://en.wikipedia.org/">http://en.wikipedia.org/</a>

### 4. 보도자료

- 『조선일보』 1998년 11월 23일자  
『헤럴드경제』 2005년 11월 4일자  
『商業時報』 1999년 11월 2일자  
*Asia Times* March 2, 200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9, 1998  
March 19, 1998  
*Forbes* July 18, 1994  
*The Jakarta Post* May 15, 2008  
*Union of Catholic Asian News* February 3, 2009

(인도네시아어 신문)

*Antara* 2008년 12월 23일자      2008년 1월 30일자

*Indonesia media* 2005년 2월 14일자      2008년 7월 31일자

*Sinar harapan* 2002년 2월 21일자

## 부 록

### 1. 동남아시아 관련 기구, 교육기관

ASEAN Secretariat

- 아세안 사무국 공식 홈페이지

<http://www.aseansec.org/>

International Directory of Southeast Asian Program

- 동남아시아학 관련 개설 교육기관 리스트

<http://www.cormosea.org/programs.html>

### 2. 동남아시아 관련 검색엔진

Asian Studies Search Engines

<http://www.ciolek.com/SearchEngines.html>

AsiaSource

<http://www.asiasource.org/>

Asiaville

<http://www.asiaville.com>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ombsweb

<http://coombs.anu.edu.au/>

Cornell University/Southeast Asia Program

<http://www.einaudi.cornell.edu/Southeastasia/index.asp>

East and Southeast Asia: An Annotated Directory of Internet Resources

<http://newton.uor.edu/Departments&Programs/AsianStudiesDept/>

US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Area Handbook Series

<http://memory.loc.gov/frd/cs/>

### 3. 동남아시아 관련 각종 자료 사이트

Abia: South and Southeast Asia Art and Archeology Index

<http://www.abia.net/>

ANU Library Southeast Asian Serials

<http://database.anu.edu.au/asia/indo/new/>

ASEAN Review of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BEC)

<http://www.arbec.com.my/>

Berkeley South/Southeast Asia Library Service (SSEAL)

<http://www.lib.berkeley.edu/SSEAL/SoutheastAsia/>

CIA: World Factbook

- 미 정보국 제공의 동남아 각국의 기본 정보자료집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Digital Asia

<http://digitalasia.library.wisc.edu/>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The Digital Initiative Program

<http://content.lib.washington.edu/index.html>

Media and Internet Asia Web Watch

<http://www.ciolek.com/Asia-Web-Watch/main-page.html>

Modern Literature of Southeast Asia

<http://members.freespeech.org/southeast-asianliterature/resources/>

SouthEast Asia Images and Texts project (SEAIT)

<http://xirs.library.wisc.edu/etext/seait/>

Southeast Asia Media

<http://www.seamedia.org/>

# ABSTRACT

##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Ethnic Chinese and the Native Indonesian

- Focused on the May 1998 Riots -

Nam, Kyoung Bo  
Dept. of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focus of this thesis is on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Ethnic Chinese and the Native Indonesian. Accordingly, the thesis attempts to make an analysis on the fundamental causes and patterns of the outbreak of the May 1998 riots, and to make comprehensive evaluations on how the Indonesian government changed policies of the Ethnic Chinese, in the aftermath of such riots.

Under the Suharto government regime, the Ethnic Chinese in Indonesia was never allowed to announce or introduce the Chinese cultures. Besides, they can never get their citizenship until they change their name into the Indonesian name. Due to such policy, the Ethnic Chinese only had an option to advance their economic status by gathering the economic wealth through the use of family-centered Confucian culture and trust-based network of the Ethnic Chinese, and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lites and enterprisers. In a position of the Ethnic Chinese corporations, networks and patron-client relations are the core competence. However, at the same time, in a position of

socially exclusive class not to use such a social capital, these factors, such as networks and patron-client relationship, were as good as the deprivation of opportunity. Accordingly, the increasing relative sense of deprivation among the Native Indonesian became the direct cause of the May 1998 riots.

Meanwhile, the religious conflicts between the Ethnic Chinese and the Muslim Native Indonesian have been accelerating. The equation of 'Rich Class=the Ethnic Chinese=Christians', will make the Native Indonesian society more susceptible to resorting to Islamic Fundamentalism and will drive the society into the sense of the anti-the Ethnic Chinese sentiments.

The public outcries in the wake of the economic crisis led to the complaints of the economically-exclusive Ethnic Chinese group. The massive capitals of the Ethnic Chinese overflowing overseas, in the wake of the May 1998 riots, led the Indonesian government into the realization that the capitals of Ethnic Chinese must inevitably be provided for the economic growth. And, as part of a bid to root in the Ethnic Chinese in Indonesia, the government nominated Imlek, one of Chinese festivals, as the national holiday, effectuated the new citizenship law, and acknowledged the Chinese traditional religion, 'Confucianism' as the official religion. But, the government's proactive 'Appeasement Policy' of the Ethnic Chinese can instigate the relative sense of deprivation about the Ethnic Chinese by the Native Indonesian,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come a factor to cause another anti-ethnic Chinese riots. Thus, it is a pressing task to make various policy packages to settle conflicts between the Ethnic Chinese and the Native Indonesian.

-----

Key Words: Indonesia, the Ethnic Chinese, Ethnic Conflicts, Religious Conflicts  
Riots, the Ethnic Chinese Corporations, the Ethnic Chinese Culture